

# Style

조선일보

MARCH 2013 vol.90







A SPORTING LIFE!







38

36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2013년 토즈의 S/S 캠페인 선 광고 캠페인이다. 새롭게 출시한 D.C.를 강조하며 브랜드의 DNA를 완벽하게 표현한 비주얼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포토그래퍼인 미겔란젤로 디바티스타의 작품이다. 문의 02-3438-6008



22



10

- 12 **THE FUNCTIONAL WATCH, SIHH 2013**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는 작은 우추와 같은 시계. 단순히 시간만 알려주는 것 외에 달력, 소리, 시간 측정까지, 기능별로 본 올해의 주목할 만한 신제품.
- 14 **2013 S/S MEN'S TREND** 남자들의 패션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더욱 다채롭고 섬세해진 2013 S/S 남성 트렌드 리포트.
- 16 **MORE & BETTER** 작고 아름다운 주얼리들을 과하지 않게 다하고, 살포시 겹치면 생각지도 못한 세련된 스타일이 완성된다.
- 18 **FINE DEFINITION** 이번 시즌 이슈로 떠오른 1990년대 미니멀리즘의 영향 때문일까. 절제된 장식과 군더더기 없는 네오빈트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스케어백이잇(Bag) 대열에 합류했다.
- 20 **HIGH TIME** 시간을 알려주는 정교하고 우아한 핸즈, 우아함의 결정체인 울트라 싼 무브먼트, 기록성을 높이는 기묘세 패턴은 비즈니스의 품격을 높여준다.
- 22 **TIME TO SHINE** 부드럽고 달콤한 줄만 달았던 배우 김재원. 진중한 남자의 깊은 매력에 담아 돌아왔다.
- 28 **FLAWLESS APPEAL** 베이스 메이크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BB 크림을 뒤로하고 'CC크림'이라는 애칭을 가진 차세대 아이템이 등장했다.
- 29 **NEW WHITENING** 화장품이 아날로 현대 과학의 결정판이 아닐까. 여성들의 영원한 소망인 깨끗하고 맑은 피부를 위해 최첨단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신제품 화이트닝 코즈메틱을 소개한다.
- 30 **SCENT STRIP** 싱그러움 과잉과 달콤한 꽃을 담은 로맨틱한 향기가 봄바람에 실려 여자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지금 화장대 위에 올려두어야 할, 봄을 위한 새로운 향수들.
- 31 **ATTRACTION ZONE** 패션과 뷰티는 물론 예술과 디자인까지 한 공간에서 천천히 둘러보고 문화를 향유하는 슬로 소핑을 제시한 10 코르소 꼬모. 이는 국내에 라이프스타일을 접목한 콘셉트 스토어가 뿌리내리게 한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 32 **SLIP MAGIC** 반짝이는 보석 장식과 생동감 넘치는 컬러, 화려한 패턴으로 무장한, 봄을 위한 슬림은 슈즈.
- 33 **ITALIAN TOUCH**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컬러, 클래식한 가죽 향과 탄력 있고 부드러운 감촉, 유행을 타지 않는 베이직한 디자인. 이는 바로 이탈리아 전통 소가죽 액세서리 브랜드 일 비종테(Bisonte)의 아이덴티티이다.
- 34 **SPRING ACCENT** 비비드한 옐로, 오렌지 컬러부터 우아하고 세련된 파스텔컬러까지 V존을 화사하게 살려줄 스프링 타이 컬러션.
- 35 **FIRST-CLASS VODKA** 시리도록 투명한 색을 품은 깨끗한 시베리아 청정수와 명품 보리로 빚어낸 고품격인 맛의 프리미엄 보드카 벨루가(Beluga).
- 36 **한옥의 재발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양보다 수명이 긴 한옥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스타일라이프하게 변신하고 있다.
- 38 **바다로부터 전해지는 풍요로움 PRUNIER**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 일컬어지는 파리의 상징라제 고트머리에서 아름다운 레스토랑이 한 곳 눈에 띈다. 프뤼니에르는 1872년부터 신선한 해산물을 전문으로 요리해온 진정한 파리지엔 레스토랑이다.

# Style 조선일보

Issue.90 March 2013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일 yejin\_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ING PROCESS  
 인쇄 | 타리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첫째 주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인 첫째 주 화요일에 배달됩니다.  
 ※ 2·3·4·8·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서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GUCCI

SHOP WWW.GUCCI.COM



## Jewel CELEBRATE IT DAY

영원한 추억, 잊지 못할 아름다운 날들을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주얼리 컬렉션.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화관처럼 화려하게 세팅한 아리아리 밴딩 링 2천만원대 **타파니**, 초콜릿 골드를 세팅한 퀴트 링 2백만원대,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퀴트 링 6백만원대 6백만원대 모두 **부쉐론**, 오버사이즈 트리니티 투르비옹 링 9백60만원대 **카르띠에**, 2개의 링이 합쳐진 반지라는 콘셉트의 포레스트 셀레브레이션 링 1천5백만원대 **피아제**,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축하의 의미를 담은 셀레브레이션 링 컬렉션. 다이아몬드를 총총히 세팅한 세이더 프롱 링 1천만원대, 크기가 다른 다이아몬드를 리드미컬하게 세팅한 스윙 링 7백만원대 모두 **타파니**, 한송이 꽃미움을 세팅한 네크리스 4백만원대 **타사기**, 초록빛 네 잎 클로버 모티프가 싱그러움 반지 알함브라 링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영원을 상징하는 0과 9의 연결 선형을 결합한 비, 제로원 컬렉션 링. 7백만원대 **블가리**, 에디터 **베미진**



모든 그림: 김민정

## Fashion

### 온라인 마케팅의 제2라운드, 마이크로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를 넘어 온라인 부티크, 소셜 네트워크, 마이크로 사이트, 애플리케이션까지 명품 브랜드의 온라인 마케팅이 여전히 활발하다. 특히 시즌 이슈에 맞는 콘텐츠로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마이크로 사이트가 각광받고 있는 것. 브랜드에서는 풍부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비주얼과 유사 깊은 히스토리, 완성도 높은 짧은 필름과 함께 고급 이미지를 각인시켜 수준 높은 패션 커뮤니티에 동참하고 있다는 특별한 만족감을 선사한다. 에르메네집도 제1는 최신 소셜 미디어 중 하나인 구글 플러스에 세련된 신인들의 스타일링 팁과 트렌드를 다루는 '제1 현대 남성'을 위한 패션 매뉴얼(plus.google.com/+zegna)을 론칭했다. 그들 영상 통화를 통해 직접 얼굴을 맞대고 팔로어들의 공유를 이끌어내며,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친밀하고 실속 있는 교류를 도모하는 것. 디올은 리브 사모스의 첫 컬렉션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팝업 프로젝트를 마이크로 사이트(www.diorpr.com/pop\_up)를 통해 공개했다. 뉴욕, 베이징, 모라노 등의 핫한 부티크에서 펼쳐진 각기 다른 콘셉트의 팝업 스토어와 셀라브리티를 엿볼 수 있으며, 각 나라의 패션 블로거는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디올을 전 세계 온라인 유저와 공유하게 된다. 샤넬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인사이드 샤넬'(www.inside-chanel.com)은 샤넬 하우스를 구축하는 말비랭이 된 상징적인 작품을 돌아보는 최고적 성격의 인터랙티브 웹사이트. 가브리엘 샤넬이 하이 주얼리 세계에 절대 혁명을 일으키게 된 이야기, 향수의 살아 있는 전설 샤넬 No.5와 함께한 유즈를 감각적인 필름으로 소개한다. 바비 브라운의 뷰티 철학을 담은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다면 '프리티 파워풀 마이크로 사이트'(prettypowerful.bobbibrowncosmetics.com/kr)에 접속할 것. 한국을 비롯해 호주, 홍콩, 일본 등 12개국에서 진행되는 콘테스트 이벤트에 참여한 각각 여성들은 메이크업 전문가를 비롯해 그들의 동기부여 스토리, 페이스 차트, 자신만의 룩을 연출하는 법 등을 공유하며 충성도 높은 바비 브라운 고객의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에디터 **이예진**



디올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Focus DRINK SPRING!

프리미엄 주류 시장에 봄에 어울리는 옷을 신뜻하게 갈아입고 소비자의 소장 욕구를 북돋우는 제품들의 근사한 모습이 눈에 띈다. 샴페인 업계에서는 보비 클리코가 봄을 맞아 생동감 넘치는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대나무, 꽃미자 등을 소재로 한 '보비 클리코 로제 스프링' 가든 컬렉션을 선보였다. 종이접기 방식을 적용한 화사한 느낌의 스프링 가든 박스(10만원대)와 전용 샴페인 잔 2개에 '블라썸 시즌용 캐리커처'가 들어 있는 스프링 가든 세트(13만원대) 등 2가지 패키지가 있으며 주요 백화점, 와인 숍 등에서 만날 수 있다. 국내 상급 몰트위스키 시장의 인기 브랜드 맥켄지는 세계적인 여성 사진작가인 애니 레반브의 감각적인 손질이 담긴 스페셜 에디션 'MOP III'를 내놓았다.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갤러리, 바, 스카이라인 등 다양한 장소의 일상적인 풍경을 담은 사진이 병에 수놓여 있으며 레반브의 사진 원본과 화보본도 함께 들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천 병 한정 생산된 이 제품은 국내에는 세 종류가 각각 10명씩만 들어왔다. 판매처는 신세계백화점이며, 소비자는 3백만원, 또 최근 프리미엄 코냑 브랜드 레미 마틴에서는 미국 팝 가수 로빈 시크가 보를 디자인을 맡아 음악의 감성을 표현한 스페셜 에디션을 내놓고, 국내 호텔 바와 클럽 VIP 라운지 등에서 1천 병을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92만원대. 에디터 **고성연**



## Beauty CANDY GIRLS

컬러풀하고 개성 넘치는 립 메이크업이 대세다. 여배우들의 자연스럽고 생기 넘치는 입술을 쉽고 빠르게 연출할 수 있는 독특한 립 컬러 아이템을 소개한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입생로랑 루주 부르 꾸뛰르 베르니 아 레브르'는 네일 폴리시에서 영감을 받은 끈적임 없는 가벼운 질감이 독특한 립스틱, 한 번 바른 립 틴트, 두 번 바른 면립로스, 세 번 바르면 립스틱 질감을 연출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6ml 309천원). 펜슬 타입의 립 틴트인 '메이크업 포에버 아우어 립 펜 틴트'는 부드러우면서도 선명한 발색력으로 깔끔한 립 라인 연출은 물론 펜슬을 길게 짊어 놓혀 입술 가운데부터 톡톡 물들이면 매트하고 선명한 립 메이크업이 완성된다(1.2g 2만 5천원).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열광하는 '나스 글산 세틴 립 펜슬'은 사탕처럼 부드러운 립을 연출할 수 있는 립 크레용이다. 립스틱보다 바르기 쉽고 립 라인이 드러나지 않게 번듯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2.2g 3015천원). 펜슬 타입의 '샤넬 르 크레옹 레브르'는 과거에 유행했던 정교한 립 메이크업이 다시 유행하면서 필수 아이템이 된 립 라이너다. 한쪽에는 펜슬, 반대쪽에는 브러시가 달려 있어 원하는 입술 라인을 정확히 그릴 수 있다(1g 3013천원). 립밤과 립스틱의 기능을 합친 '크리니크 차비 스틱 립 컬러 밤'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티옌의 제품으로 발색력과 지속력 모두 뛰어나다. 바터와 오일, 향산화 성분이 입술을 촉촉하게 한다. 한 번 바르고 손끝으로 문지르면 자연스러운 느낌을, 꼼꼼하게 바르면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완벽한 립 메이크업을 완성한다(3g 2만7천원). 얇고 슬림한 패키지로 휴대가 간편한 '에스티 로더 큐어 컬러 시어 매트 립스틱'은 과일 추출물 성분이 풍부한 입술을 촉촉하게 가꾸주는 것은 물론, 리프트 퍼팩팅 필 입자가 화사한 반짝임을 선사한다. 통통 튀는 4가지 비드한 컬러 역시 매력적이다(1.24g 3016천원). 에디터 **권유진**

## Exhibition 토즈의 D.D백과 함께하는故 다이애나비 사진전 <Timeless Icon>



영국 고(故)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우아한 감각이 녹아든 라이프스타일을 조명하는 사진 전시회가 갤러리 현대 강남에서 4월 4일부터 7일까지(오전 10시~오후 6시) 열린다. 또 4월 3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이 전시회의 오프닝 이벤트가 개최된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토즈의 후원으로 빛을 보게 된 고 다이애나비 사진전 <Timeless Icon>에서 선별한 40점의 작품을 소개한다. 지난 2월 23일 밀라노 패션 위크 기간에 열린 토즈의 칵테일 파티에서 처음 공개된 이 사진전은 이탈리아 작가 카를로 만초니와 출판업체 엘렉타(Electa)의 공동 작업으로 고 다이애나비의 인간적인 면모가 스며든 개성 넘치는 스타일링을 엿볼 수 있는 92점의 사진을 담았다. 토즈는 고 다이애나비 사진전 발간과 그녀가 생전에 자주 들고 다녔던 토즈의 상징적인 D.D백을 기념하기 위해 기존 디자인을 변형한 스타일에 장인의 수작업으로 스와로브스키 장식을 더해 다시 탄생시킨 'D.D백'을 공개했다. 에디터 **고성연**



# BURBERRY

BURBERRY.COM





강한 햇빛을  
가려줄 라피아  
모자 40만원대  
마크 제이콥스  
by 주느세라.

테슬라 리본 디자인이 시형스러운  
골프화 가격 미정 보그너.

컬러 패턴이 유니크한  
선글라스 40만원대  
로에베 by 다리 F&S.

볼 주머니  
키링 3만3천원  
아다버트.

레드 컬러 칼라로 포인트를 준  
스트라이프 피케 셔츠 15만8천원  
파스텔 핑크 컬러의 후드 잠입 아우터  
33만18천원 모두 잭 니콜라우스.

for her  
**Selection**

골퍼들에게 따뜻한 봄바람만큼 반가운 것이 있을까? 필드를  
물들이는 핑크·파플·옐로 컬러는 오로지 여성 골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photographed by kim do hyun*

골프공, 핀 등 소품을 수납하기에 편리한 숄더가죽 미니 백  
1백15만원 할프 로렌 블루 라벨.

플라워 모티브의  
볼마스크 5만5천원  
아다버트.

핀드 카네디 배번의 골프가장  
6만2천원 잭 니콜라우스.

형량 그린 컬러의 스트랩으로  
포인트를 준 골프화 31만원 예코.

고급스러운 소가죽 볼 케이스  
18만7천원 도모두.

오픈 클러의 클럽 케이스  
1만7천원 아다버트.

리본 프린트가 앙증맞은  
천연 캔버스 소재의 잔느 백.  
34X23cm, 3백60만원 고아드.

- 예코 031-628-4800
- 보그너 02-518-6456
- 미즈노 02-322-6106
- 도모두 02-588-0801
- 린드레스 02-2024-2013
- 잭 니콜라우스 1588-7667
- 주느세라 02-515-3151
- 다리 F&S 02-546-7764
- 스텔라 맥카트니 02-6905-3680
- 아다버트 02-3438-6283
- 할프 로렌 블루 라벨 02-545-8200
- 아다다스 골프 02-3415-7300
- 고아드 02-3448-4778

THE LAUNDRESS  
NEW YORK  
SPORT  
SPRAY  
4.1 fl. oz. / 125 ml



TASAKI

balance





슈퍼 퀴츠를 장착해  
정확한 타임 존  
변경 시스템을 갖춘  
스포츠한 느낌이 울트  
크로노그래프 2 워치  
가격 미정 브라이틀링.

레드 스트라이프  
패턴의 보스턴 백,  
37X30cm, 12만원  
아디다스 골프.

레드 스트라이프  
패턴의 보스턴 백,  
37X30cm, 12만원  
아디다스 골프.

신용카드에 붙여  
볼 마인 7277원 아다바트,  
adabar

타겟인드 골프채 1백09만원에  
세트 미즈노.

고급스러운 가죽 인장 케이스 8000원에  
코스토프로 마이애를 by 주느세라.

그린 컬러의 스포츠가방  
아미엔 AS 7690원  
뱅앤올슨.

볼을 볼 때  
타겟을 지향하는 투어 아이저 골프공 가격 미정 마이애미.

체크 패턴 맨초 21만8천원  
잭 니클라우스.

브랜드 로고를 새긴 베이식한  
디자인의 모자 48만원  
브리오나.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근교한  
디자인의 그레이  
컬러 골프화  
42만원 아코.

매만한 가죽  
소재가  
코어 스타일  
그린 컬러 벨트  
1백2800원 아코.

파스텔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준 골프 장갑  
1만8천원 미즈노.

키톤 02-6905-3787  
에코 031-628-4800  
보그너 02-518-6456  
토즈 02-3438-6008  
까스텔바작 02-2143-7671  
브라이틀링 02-3448-1230  
아디다스 골프 02-3415-7300  
아다바트 02-3438-6283  
주느세라 02-515-3151  
뱅앤올슨 02-518-1380  
브리오니 02-6905-3760  
미즈노 02-322-6106  
갤러웨이 02-3218-7406  
잭 니클라우스 1588-7667

for him  
**Selection**

새로운 시즌에는 보다 선명한 컬러에 도전해보자. 봄바람을  
가르는 시원한 스윙만큼이나 상쾌하고 트렌디한 골프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hong sung eun*

“More than a feeling”  
Wishnu Wardhana, London



**Kiton**  
THE BEST OF THE BEST +1

THE GALLERIA EAST 4F / 82 2 514 9088 SHINSEGAE MAIN 3F / 82 2 310 1578 HYUNDAI MAIN 4F / 82 2 3449 5394  
GRAND HYATT HOTEL ARCADE / 82 2 749 3088 KITON.IT



# the functional watch SIHH 2013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는 작은 우주와 같은 시계. 단순히 시간만 알려주는 것 외에 달력, 소리, 시간 측정까지, 기능별로 본 올해의 주목할 만한 신제품.



## Hour Only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은 시계의 존재 이유다. 최근에는 복잡한 기능에서 탈피해 시계가 점점 단순해지고 있다. 기본기에 충실한 시계는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클래식으로 여겨진다. 여성 시계, 특히 주얼리 시계는 기본적인 기능만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시계 너머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기 위해 적당한 장식은 필수다. 여성용 시계를 얇고 작게 만들기 위해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하는 일이 많지만, 전통적인 브랜드는 기계식 무브먼트를 고집하곤 한다. 19세기의 전통을 그대로 이은 바셀론 콘스탄틴 페트리오니 트레이드셔널 레이디 디매뉴얼 와인딩이 대표적이다.

## Small Second

시와 분만 알려주는 아워 온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 초를 표시한다. 현재 시계는 대부분 다이얼 중앙 부분에서 크게 돌아가는 시침, 분침에 초침을 얹은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과거 회중시계를 보면 6시 방향에 있는 작은 창에 초침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스몰 세컨드라고 부른다. 초에 해당하는 톱니바퀴 바로 위에 초침을 둔 구성으로 전통적인 시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형태다. 최근에는 옛 느낌을 살리기 위해 스몰 세컨드를 두는 시계를 볼 수 있다.

## Chronograph

시간을 기록하라는 의미를 지닌 크로노그래프는 1821년 파리에서 열리는 경마를 위해 프랑스의 니콜라스 뒤섹이 고안했고 1862년 영국의 시계 제작자 아돌프 니콜이 최초로 시계에 적용했다.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이다.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킬 때 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했다. 크로노그래프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기에 좋아 남성 시계에 주로 사용됐고, 최근에는 이를 캘린더, 미닛 리피터에 결합한 컴플리케이션 시계가 등장하고 있다.

## Regata

레가타는 조정, 요트, 보트 경기를 일컫는 말로 14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곤돌라 레이스를 레가타라 부른 데서 유래했다. 요트 경기에서 출발 5분 전은 아주 중요하다. 경기에 참가한 요트는 1개의 해상 부표와 본부선을 이은 가상선으로 된 출발 라인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절차는 5분 전 예고 신호, 4분 전 준비 신호, 1분 전 신호 후 출발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 레가타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크로노그래프 시계지만 요트 경기를 위한 출발 시간을 특별히 측정할 수 있는 표시를 따로 해두고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다.

## Retrograde

레트로그레이드란 역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계에서 레트로그레이드는 핸즈가 360도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20~150도의 부채꼴 형태 안에서 움직이고, 다시 역으로 처음 위치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기능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시, 분, 날짜, 요일, 파워 리저브 등의 기능에 사용된다. 반클리프 아펠은 이 레트로그레이드를 매우 서정적인 방식으로 풀어냈는데 요정의 요술봉이 시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가하면, 올해는 발레리나의 날개 모양 스크트 자락을 핸즈로 사용하는 아름다운 시계를 내놓았다.



1 바셀론 콘스탄틴 페트리오니 트레이드셔널 레이디 디매뉴얼 와인딩, 베젤에 총 0.88카트의 54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40시간 파워 리저브는 길리버 1400을 탑재했다. 2 로저 뒤섹 엑스칼리버 38 인블루, 재채비 인증을 받은 기계식 무브먼트 RD821을 탑재한 시계. 3 파넬리 루마노르 1950 레가타 3 데이츠 크로노-플라이백 티타노 47MM, 4시 방향의 푸시 버튼으로 레가타 카운트다운의 속정이 가능하고 다이얼에는 보트의 속도를 읽 수 있는 노트 스케일을 넣었다. 4, 5 IWC 인벤터이 크로노그래프 레이스, 40,000A/m에 해당하는 자성을 견딜 수 있는 시계로 12시 방향에 크로노그래프에 해당하는 시간 분을 함께 표시한다. 6-8 반클리프 아펠 포에티 컴플리케이션 레이디 아펠 발레리나 앙상블, 다이얼 왼쪽은 시간, 오른쪽 부분은 분을 표시한다. 조카, 에펠, 보석 세팅이 잘 이루어진 작품이다.



## World Timer

여행이나 출장이 잦아지면서 떠나온 곳의 시간과 도착한 곳의 시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시계가 필요해졌다. 그러니치 표준시인 GMT와 협정시인 UTC 등 2개의 시간대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투타임 존, 세계 시간의 기준이 되는 대표 도시를 다이얼에 표시해 여러 곳의 시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월드 타임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월드 타임의 경우 GMT 기준의 24개 도시 외에 경도에 따라 30분의 오차가 적용되는 도시까지 표시한 33개 도시를 담은 시계도 있다.

## Tourbillon

부품이 받는 중력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 투르비옹이다. 아주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탓에 제작하기 힘들지만 현재 많은 브랜드가 각각의 투르비옹을 소개하면서 희소성이 떨어졌다. 2차원 투르비옹부터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3차원 투르비옹, 2개를 넣은 더블 투르비옹 등 다양한 모습이다. 기계적인 면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기술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제작했지만 까르페의 경우 올해 보다 아름다운 투르비옹을 소개했다. 고정된 틀이 보이지 않고 떠 있는 듯한 효과를 내는 미스터리 방식으로 투르비옹을 표현한 시계로 마치 자전과 공전을 하는 소행성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 Sky Chart

스카이 차트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문패이즈와 또 다른 낭만적인 감성을 표현해주는 시계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스카이 차트가 회전하는 방식이다. 시계나 고객이 있는 지역의 밤하늘을 특별 주문으로 담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도 있었다. 예가 르클트르가 작년 여성용 시계로 소개한 랑데부에 스카이 차트를 넣은 랑데부 셀레스티얼은 염소, 공수, 전갈, 사자 등 태양이 황도를 따라 연주운동을 하는 길에 있는 주요 별자리를 담았다.

## Minute Repeater

어두운 곳에서도 시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야광 도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1930년대다. 그 전에는 소리로 시간을 알 수 있는 미닛 리피터 기능이 유용했다. 순간적인 동력을 제공하는 레버를 잡아당기면 해머가 공을 때리면서 시간과 분을 소리로 알려주었다. 기본적으로 2개의 해머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해머를 늘리면 멜로디까지 구현해줄 수 있다. 제크마나 오토마톤 등 미닛 리피터가 작동될 때 함께 움직이는 행상을 넣은 시계도 있는데 올해 피아제는 세계에서 제일 얇은 9.4mm 두께의 미닛 리피터 시계에 도전했고, 파르미지아니는 아름다운 미닛 리피터를 선보였다.

## Perpetual Calendar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기준에 쓰던 율리우스력의 오차를 수정해서 발표한 그레고리력은 오늘날까지 사용하는 태양력이다. 그러나 1년은 365.2425일로 오차가 있어서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만들어 평년과 달리 2월 29일을 두어 오차를 수정한다. 이러한 달력에 기준을 둔 시계는 시간 외에 날짜를 표시하는데 날짜, 요일, 월은 물론 윤년까지 자동으로 조정이 가능한 기능이 페페추얼 캘린더이다. 그 자체로 컴플리케이션 시계로 분류하지만 최근 크로노그래프나 미닛 리피터 등 다른 기능을 결합해 더 복잡해지거나 기능의 배열은 단순화시키는 등의 변화를 볼 수 있다.

## Pocket Watch

20세기 초까지 사용하던 회중시계는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손목시계에 그 자리를 넘겨주었다. 전통적인 기계식 시계의 부흥에 힘입어 전통을 되살리려는 차원에서 회중시계를 제작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현대적인 디자인과 방식이 흥미롭다. 보베나 파르미지아니는 손목시계로 변신시킬 수 있는 회중시계를 소개했다. 오프치네 파넬리아는 1930년에 탄생한 브랜드로 역사적으로 애초에 회중시계를 생산한 적이 없었으나 올해 이례적으로 회중시계를 소개했다. 세타믹 소재로 제작한 전통과 현대가 만난 결과물이다. 15 글꼴의 시계 칼

## 11



6, 7 몽블랑 타임워커 월드타임 헤르스피어, 다이얼에 적도를 중심으로 위쪽 대륙을 표시한 북반구용, 남극 등의 대륙을 표시한 남반구용 중 선택할 수 있는 시계. 8 까르페에 로토드 드 까르페에 더블 투르비옹 마스터, 시미어 글라스 밑에 고정해 떠 있는 듯 보이는 투르비옹이 5초에 한 번씩 회전하면서 돌아온다. 9 예가 르클트르 랑데부 셀레스티얼, 라피 라즐리에 기요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카이 차트가 23시간 56분 4초를 주기로 1회전한다. 10, 11 파르미지아니 토릭 케스티 라비린스, 바리산 옥에 미공을 표현한 골드 핀을 넣은 다이얼 디자인이 독특하다. 12, 13 랑데부 워드 워치 1815 리트리빙터 페페추얼 캘린더, 2100년까지 수정이 필요 없는 페페추얼 캘린더, 1백22캐리단 단 하루 오차 조정만 해도 되는 문패이즈에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기능까지 갖췄다. 14 파넬리아가 선보인 회중시계, 15 파르미지아니 론다 트랜스포머 CBF, 회중시계, 손목시계, 그리고 제공하는 워인딩에 넣어 탁상시계로 사용할 수 있다.



15 글꼴의 시계 칼



# 2013 S/S MEN's trend

남자들의 패션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여성스러운 실루엣의 롱 튜닉과 쇼츠, 그리고 화려하고 프레시한 컬러까지, 그동안 여성 컬렉션에서나 볼 수 있었던 요소와 과감한 스타일을 남성 컬렉션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 것. 이는 과거보다 스타일리시해진 남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더욱 다채롭고 섬세해진 2013 S/S 남성 트렌드 리포트.

## trend 1\_ daily resort wear

여행을 사랑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제트족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면서 보다 실용적인 럭셔리 리조트 웨어가 눈에 띈다. 이국적인 프린트와 트로피컬 컬러는 그대로 유지하되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디자인과 과하지 않은 디테일, 여유로운 실루엣을 강조해 데이 웨어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실크, 캐시미어 등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 차분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더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 trend 2\_ urban military

스트리트 패션에서 모티브를 얻은 어번 밀리터리 룩이 브랜드를 막론하고 대세를 이뤘다. 이는 스트리트 패션이 컬렉션을 지배하고 그만큼 파워풀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룩. 군용 유니폼의 디자인과 컬러, 카무플라주 패턴을 곳곳에 적용했지만 클래식한 아이템이나 테일러드 룩과 조화를 이뤄 워트 있는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이 포인트다.

## trend 3\_ comfort slouch pants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은 넉넉하면서 발목으로 갈수록 통이 좁아지는 와이드한 슬라우치 팬츠에 주목할 것. 편안하면서 여유로운 실루엣과 살짝 접히는 바지 주름이 멋스러운 슬라우치 팬츠는 골반 라인에 무심하게 걸렸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 특유의 넉넉한 라인으로 자칫 잘못하면 핏과 스타일이 어정쩡해 보일 수 있는데, 포말한 니트나 재킷, 카디건처럼 클래식한 아이템과 매치하면 스타일링에 실패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릴 수 있다.

## trend 4\_ minimal long shirt

길고 슬림한 라인에 돋보이는 롱 & 린(long & lean) 스타일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남성복에서도 영영이를 땀는 긴 기장의 셔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베이직한 셔츠나 튜닉 스타일로 제안되는데, 한층 슬림해진 디자인으로 날씬하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긴 튜닉 셔츠에 슬림한 라넨 팬츠와 샌들을 매치해 감각적인 서머 룩을 시도해보거나, 길고 루스한 아우터와 스타일링해 편안하면서도 아방가르드한 룩을 연출해도 멋스럽다.

## trend 5\_ luxury sport

요팅(yachting), 스쿠버 다이빙 등 럭셔리한 해양 스포츠가 패션 하우스의 주요 모티브로 부상했다. 기존의 스포츠 웨어와 다른 점은 단순히 기능성에 집중했기 아니라 일상에서도 웨어러블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실용성과 도시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루이 비통 컬렉션을 꼽을 수 있다. 요트를 즐기면서도 대중적인 감각을 지닌 남성성을 위해 편안한 실루엣과 부드러운 가죽, 실크 시어셔커, 캐시미어 등 가볍고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한 스포츠 룩을 선보였으며, 곳곳에 밧줄, 산호, 돛, 해마 등의 모티브를 더해 여름의 감성을 녹여냈다.

## trend 6\_ soft shorts

작년부터 보란 듯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남성 쇼츠는 올해에도 계속 만날 수 있다. 짧은 쇼츠가 부담스럽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등장한 여유롭고 볼륨감 있는 실루엣의 미디 쇼츠를 눈여겨볼 것. 이는 무릎을 살짝 가리는 길이와 유연한 소재로 더욱 편안하면서 풍성한 느낌을 연출한다. 에르메스는 미디 쇼츠를 셔머 니트와 함께 캐주얼하게,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포말한 수트 재킷에 매치해 클래식하면서도 경쾌한 쇼츠 스타일을 완성했다.

## trend 7\_ blue combination

블루 컬러가 비중 있게 등장하는데, 특히 에시드 블루, 라이트 블루, 파스텔 블루 등 다양한 톤의 블루 컬러끼리의 레이어링이 큰 흐름을 보인다. 그동안 보색 개념만 있던 대중의 테이스트가 점점 채도와 명도, 컬러 콤비네이션에 대한 이해로 발전하면서 디자이너들 역시 색채에 대한 미묘한 감각을 활용해 다양한 컬러 조합을 선보이고 있는 것. 블루 콤비네이션 스타일을 연출할 땐 니트와 코트의 조화처럼 소재를 달리해 단조로움을 피하고, 채도에 차이를 둔 톤온톤 매치로 미니멀하면서 세련된 컬러 블록을 완성해보자.

## trend 8\_ weekend suit

무채색으로만 일관하던 남성 수트에 컬러 바람이 불었다. 레드, 오렌지, 옐로 등 이보다 더 컬러풀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듯 강렬한 컬러의 수트가 대거 등장한 것. 일과 여행을 병행하는 역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남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수트 역시 리조트 웨어를 연상케 하는 컬러풀한 워크엔드 수트로 탈바꿈했다. 구찌는 옐로, 블루 등의 비비드한 컬러 수트를 선보였는가 하면, 컬러 스니커즈에 레드 수트를 매치해 감각 있는 캐주얼 룩을 완성한 살바토레 페라가모 컬렉션도 너무나 매력적이다.

## trend 9\_ pale pastel

이번 시즌엔 화이트 컬러에 가까운 파스텔컬러가 강세다. 작년, 남성은 물론 여성 컬렉션 전반을 주도했던 파스텔컬러를 캔디 컬러에 비유한다면, 올봄 파스텔컬러는 색조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맑고 화사한 느낌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톤온톤으로 스타일링해 깨끗하게 표현하거나 비비드한 컬러와 함께 화사하게 연출 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 trend 10\_ light suit

전반적으로 캐주얼한 감성을 드러낸 남성 컬렉션의 영향은 수트에도 변화를 주었다. 클래식한 수트의 비중은 줄어들고 보다 젊은 감성의 수트 스타일 이 주를 이룬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 대표적 룩이 바로 슬리브리스 재킷과 수트 팬츠의 매치다. 디올 움트는 멋스러운 테일러링을 더한 더블 브레스티드의 슬리브리스 재킷을 키 룩으로 선보였으며, 톰 브라운은 고래 프린트의 슬리브리스 재킷으로 룩에 재미를 더했다.

## trend 11\_ art gallery

예술 작품을 연상케 하는 아티스틱한 프린트는 매 시즌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트렌드. 그중 종교적 색채가 짙은 프린팅은 그 어떤 패턴보다 임팩트 있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종교적 패턴이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는 데는 신성한 것에 대한 갈망을 표현함과 동시에 예술을 살짝 비틀었을 때 느껴지는 재미도 한몫을 한다. 지방시는 이번 시즌 여러 명의 종교적 인물을 등장시켜 과감한 연출을 시도했는데, 완성도 높은 연출력과 파워풀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다. **IS** 에디터 권유진



GUCCI

LOUIS VUITTON

DE REBERNY PRORSI M

KENZO

GIORGIO ARMANI

HERMÈS

GIVENCHY

Z ZEGNA

DIOR HOMME

PRADA

SAVATORE FERRAGAMO



# More & better

작고 아름다운 주얼리들을 과하지 않게 더하고,  
살포시 겹치면 생각지도 못한 세련된 스타일이  
완성된다. 하나보다 둘이 되었을 때 더 빛나는 주얼리  
레이어링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반치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드러운 질감과 유선형 디자인이 시원스러운 메디테라피안 에센 컬렉션 링 두 가지를 매치했다. 핑크 퀴츠와 블루 칼세드니를 세팅한 싸이 링 각 2백만원대 **볼가리**, 아코야 진주 비즈 네크리스의 잠금 부분에 밸런스 모티브를 매치해 여성스러운 브러시 네크리스 1백40만원, 원 포인트 진주 펜던트 네크리스 60만원대 모두 **타사키**. 새롭게 출시한 세라미 소재의 블랙 러브 링과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을 세트로 선보인다. 세 가지가 한 세트다. 7백30만원대 **까르띠에**. 열쇠 모티브의 키 컬렉션 펜던트는 다양한 사이즈를 함께 레이어링하면 멋스럽다. 가장 작은 사이즈의 미니 반치 오벌 키와 크라운 키, 클로버 모티브의 키 각 2백만원대 모두 **타파니**. 링 안의 링이라는 콘셉트의 포제션 유옹미 컬렉션 네크리스. 마치 2개의 펜던트를 매치한 듯한 느낌을 준다. 1천2백만원대 **피아제**. 밤에 가서 영감을 받은 화이트 세팅 보행 링과 같은 디자인의 옐로 골드 링을 레이어드해 더욱 볼드하게 느껴진다. 각 4백만원대 **부세론**. 작은 클로버 모티브를 다이아몬드로 세팅한 옐로 골드 배틀리 브레이슬릿 3천5백만원대, 이탤리케로 브랜드 이름을 인그레이빙한 핑크 골드 배틀리 브레이슬릿 8백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지금 가장 각광받는 두 가지 디자인의 브링클을 매치했다. 첫 모티브를 핑크 골드 소재로 대담하게 표현한 자스트 앵글루 브레이슬릿 8백10만원대, 다이아몬드를 토폰에 세팅한 러브 브레이슬릿 6천5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에디터 배미진

타사키 02-3461-5558 부세론 02-543-6523 타파니 02-547-9488 볼가리 02-2056-0172  
까르띠에 1566-7277 피아제 02-540-2297 반클리프 아펠 02-3440-5660



theory



블루종 재킷 버버리 프로섬.  
블루 도트 셔츠 사슬리  
웜, 그래픽적인 실크 팬츠  
에르메네젤도 제나.



# Time to Shine

부드럽고 달콤한 줄만 알았던 배우 김재원.  
진중한 남자의 깊은 매력을 담아 돌아왔다.  
*photographed by park jung min*



그레이 셔츠, 타이,  
팬츠 모두 보테가  
베네타.





네이버 재킷, 루스핏 팬츠  
모두 버버리 프로섬, 데님 셔츠  
플로우즈드, 네이버 니트 장갑  
A.P.C.



그레이 울 재킷 시리즈, 데님  
팬츠 아크네 by 무이, 블루  
헝커치프 알렉산더 울치 by  
10 포르스 코모, 브라운  
스웨이드 부츠 보테가 베네타.



네이버 재킷 다울 울트,  
카고 팬츠 시리즈,  
그레이 브리프케이스 쿠론.



카죽 재킷 토즈, 블루 셔츠 칩센터,  
화이트 라인이 들어간 네이비 팬츠  
프라다, 레이스업 슈즈 Z 제나.

토즈 02-3438-6008  
다울 울트 02-518-0270  
Z 제나 02-546-6287  
10 포르소 코모 02-3018-1010  
보테가 베네타 02-3438-7882  
루이 02-3446-8074  
시리즈 02-548-4358  
에르메네집도 제나 02-511-0285  
프라다 02-3218-5331  
버버리 프로섬 02-3485-6536  
칩센터 02-546-3067  
시슬리 울트 02-548-3956  
쿠론 02-3677-8200  
A.P.C 070-7820-7524  
클로우즈드 02-3444-1730

헤어&메이크업 김환  
캐스팅 디렉터 김우리  
스타일리스트 구동현  
에디터 배미진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신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http://www.stylechosun.com)



# High time

비즈니스 위치의 매력은 단순하며 심플한 기능. 시간을 알려주는 정교하고 우아한 핸즈, 우아함의 결정체인 울트라 싼 무브먼트, 시간의 가독성을 높이는 기묘세 패턴은 비즈니스의 품격을 높여준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위부터 아래로) 에거 르클트르 마스터 울트라 싼 문 39 비즈니스 위치의 핵심 기능을 간결하게 담은 워치. 6시 방향의 문메이즈가 클래식한 느낌을 더한다. 케이스 두께를 최대한 얇게 하기 위해 칼라버 925를 탑재했고, 43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2천2백만원대, 문의 02-756-0300

IWC 포르투기즈 오토매틱 싼바와 화이트를 매치한 다이얼, 골드 인덱스, 스틸 베젤에 블랙 악자죽 스트랩을 매치해 멋스럽다. 9시 방향의 세컨즈 인디케이터, 시간을 표시하는 우아한 디자인의 핸즈가 비즈니스 워치가 갖춰야 할 덕목을 클래식하게 소화한다. 7일 동안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1천5백만원대, 문의 02-2639-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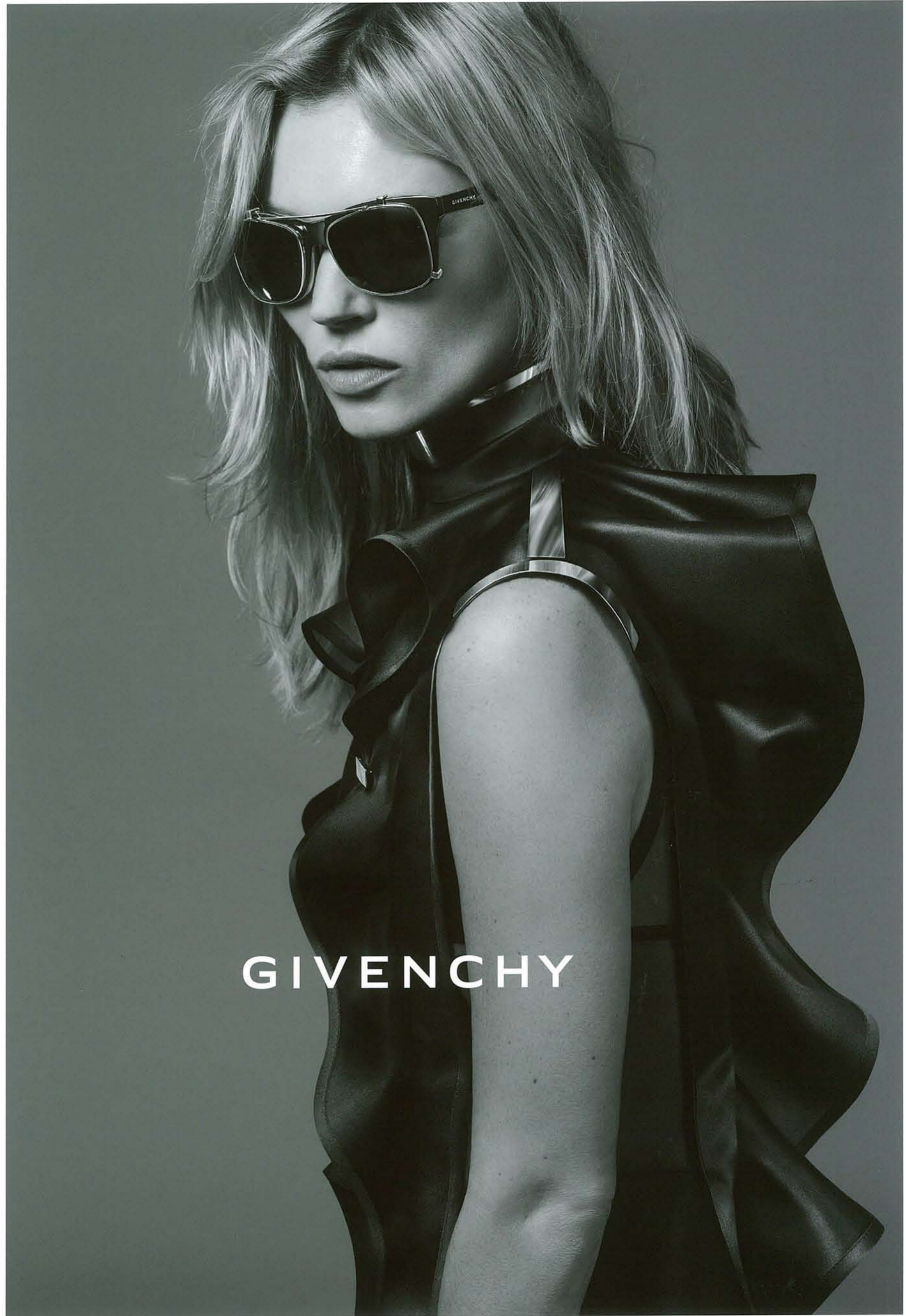
오메가 드빌 프라스티지 인덱스를 로마자와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표시한 우아한 디자인으로 오메가의 프리미엄 라인 드빌의 프레젠테이션 모델이다. 심플하면서도 품격 있는 디자인의 옐로 골드 케이스, 브라운 얼모가이터 스트랩을 매치한 고전적인 비즈니스 워치다. 1천5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브레게 클라시 5967 다이얼 직경 41mm에 기묘세 패턴을 상세하게 세팅한 클래식한 디자인의 워치. 블루 컬러 오픈 핸즈가 로만 인덱스를 우아하게 가리키고 있다.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는 코드 드 주네브 장식으로 감싸인 브레게 고유 전통적인 기조를 그대로 담은 대표작인 디자인이다. 2천2백만원대, 문의 02-3438-6218

올리브 나르덴 이그제큐티브 듀얼 타임 무언하리셔도 클래식한 느낌을 담은 듀얼 타임 워치. 9시 방향의 이중창으로 듀얼 타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듀얼 타임 워치보다 가독성이 높다. 6시 방향에 위치한 스몰 세컨즈 창도 비즈니스 워치에 꼭 필요한 요소다. 남성미를 강조한 43mm 케이스와 블랙 베젤이 인상적이다. 1천1백만원대, 문의 02-2192-9628

해리 윈스턴 미드나잇 오토매틱 디자인이 우아한 2개의 핸즈, 3시 방향의 해리 윈스턴 시그니처인 3개의 아치 문양, 12시 방향의 브랜드 심벌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심플하면서도 깊이 있는 디자인에 45시간 파워 리저브,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까지 견고한 기능을 갖췄다. 2천만원대, 문의 02-540-1356

파르미자니 톨다 1950 울트라 싼 무브먼트를 적용해 얇고 우아한 실루엣이 특징인, 브랜드를 대표하는 컬렉션이다. 시, 분, 초를 표시하는 주요 기능만 갖춰 가독성이 뛰어나다. 두께는 2.8mm에 불과하지만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품고 있다. 심플한 디자인의 비즈니스 워치를 원하는 남성에게 추천한다. 2천1백만원대, 문의 02-3479-1986 에디터 배미진





# Fine definition

이번 시즌 이슈로 떠오른 1990년대 미니멀리즘의 영향 때문일까. 절제된 장식과 군더더기 없는 네모반듯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스퀘어 백이 잇백(Bag) 대열에 합류했다. 클래식하면서도 도시적인 세련미를 느낄 수 있는 여성 스퀘어 백.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블루 & 화이트 블랙 컬러가 조화를 이룬 줄리 솔더백, 22.7x17cm, 1백57만원 **토즈**. 빨간색으로 가방 사이드트림에 포인트를 준 케이스 백, 25.5x15cm, 가격 미정 **셀린**. 서류 봉투를 연상케 하는 송아지가죽 소재 이시스 에이패드 백, 28x21.5cm, 1백33만원 **발렌스타라**. 고급스러운 소가죽 소재와 버클 장식이 클래식한 줄리 백, 23x20cm, 가격 미정 **에르메스**. 가느다란 골드 체인이 돋보이는 벤틀리 미니 백, 21x18cm, 가격 미정 **생 로랑 파리**. 토트와 솔더백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다리에 파채트 스피디 큐브 백, 20x16cm, 2백50만원대 **루이 비통**. 강렬한 레드 컬러가 눈에 띄는 보이 샐 백, 25x15cm, 5백만원대 **샤넬**. **에디터 권유진**

**토즈** 02-3438-6008 **셀린** 02-3444-1708 **발렌스타라** 02-2118-6080 **에르메스** 02-3015-3251 **생 로랑 파리** 02-3438-7627 **루이 비통** 02-3432-1854 **샤넬** 02-546-0228

# TED BAKER

## LONDON



Find Ted's Quintessentially British Menswear, Womenswear & Accessories collections in the following locations:

신세계 백화점 본점 서울 남성 7층, 여성 3층

롯데 백화점 - 평촌점 남 여성 4층

대백 프라자 - 대구 남성 7층, 여성 4층



# Flawless appeal

베이스 메이크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BB크림을 뒤로하고 'CC크림'이라는 애칭을 가진 차세대 아이템이 등장했다. 컬러 킷틀 크림, 비타민 C 크림 등 브랜드마다 효과나 내세우는 성분은 다르지만, 이 모두의 공통점은 BB크림보다 촉촉하고 스킨케어 기능을 강화해 피부를 보다 매끈하고 화사하게 연출해준다는 점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도레파시픽 트리트먼트 컬러 킷틀** 무선 일안 장치 수가 아닌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대나무 수액과 청정한 제주도의 정기를 받은 녹차 성분을 담아 스킨케어 효과를 더욱 강화한 컬러 킷틀 쿠션, 뛰어난 스킨 트리트먼트 효과로 닷버르만 닷버르수목 광채와 촉촉함이 배가되는 것이 특징이다. 폭신평신한 스펀지 재형의 쿠션 파운데이션 형태로 미세한 재형이 쿠션의 훌륭한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알고 가볍게 피부에 묻어 나와 피부에 알은 먹음 씌운 듯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15gX2개입 포장 6만15천원, 문의 080-023-5454

**랑콤 에너지 컬러-리프트 CC 컬러 코렉터** 노화로 어두워진 인색을 커버하고 탁월한 리프팅 효과를 피부 탄력을 개선해주는 올인원 컬러 코렉터 크림. 기존의 BB크림이 지워진 차근과 피부 톤 보장에 효과가 있었다면 차세대 CC 컬러 코렉터는 리프팅, 주름, 탄력 개선 등 안티에이징 효과를 더해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기능을 동시에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리프팅하기 어려웠던 피부 속 세밀한 부분까지 작용해 피부를 더욱 탄력 있게 가꾸주는 것은 물론, 뱀뱀처럼 매끄럽고 가벼운 터치감으로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커버력과 광채를 선사한다. 40ml 9만2천원, 080-022-3332

**샤넬 CC크림 SPF 30/PA+++** 피부가 건조해지는 스킨 코렉터는 콘셉트로 탄생한 CC크림의 원조 인벤션 아이템. 베이스 메이크업의 커버력과 피부 톤 보

정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안티에이징과 보습, 화이트닝, 피부 진정 효과를 결합했다. 자연스러운 커버력으로 메이크업을 한 듯 안 한 듯 생기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으며, 풍부한 보습력이 물기를 머금듯 촉촉한 피부로 가꿔준다. 30ml 7만원, 문의 080-332-2700

**카멜레온 비타민 CC크림** 자전에서 얻은 내추럴 미네랄 피그먼트가 피부 결점을 자연스럽게 커버하고 비타민 C 성분은 비타민 C 에센스를 바른 듯 탁월한 스킨케어 효과를 선사하는 자자극 비타민 CC크림. 화이트닝, 주름, 자외선 차단이라는 3중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정화된 비타민 C 성분이 색소침착을 예방한다. 또 보습력이 뛰어난 글리세린 성분이 수분을 공급해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를 유지해주며 탁월한 일차적과 심층한 미유리감으로 자연스러운 피부 톤을 완성한다. 30ml 4만2천원, 문의 080-022-3332

**헤라 컴플리트 케어 크림 SPF 35 PA++** 균일한 커버와 피부결 보정, 즉각적인 브라이트닝 효과를 선사해 '포도삼 크림'이라는 애칭을 가진 CC크림. 과할 배인액과 비타민, 파우더, 꿀 성분을 배합해 완성한 보습 성분을 50% 이상 함유해 스킨케어 효과를 더욱 극대화했다. 빛을 반사시키는 크고 작은 입자의 파우더를 배합해 피부를 밝히고 화사하게 연출하고, 스타카처럼 알고 탄력 있는 엘라스틱 에멀션 파우더 성분이 피부에 알고 탄력 있게 밀착되어 가볍지만 커버력은 확실

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피부에 매끄러운 먹을 형성해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30ml 4만2천원, 문의 080-023-5454

**오리자널 로우 원 스텝 클리닝 크림 SPF 50+ PA+++** 수분 크림 역할부터 베이스 메이크업 기능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능성 멀티 크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신희 파우더가 오랜 각질과 피부를 제거하고 울리고 팽타이드 성분이 피부에 탄력을 주며, 비타민 C가 풍부한 동백꽃 추출물이 피부를 화사하게 가꿔준다. 화이트 베이스 속에 숨은 컬러 캡슐이 개인의 피부 컬러에 맞게 자연스럽게 결합해 건강한 피부 톤을 연출하고 천연 진주 성분이 착한 인색을 개선한다. 지속성과 밀착력이 뛰어난 몽이나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50g 9만8천원, 문의 031-781-6935

**오찌 컬러 킷틀 크림 SPF 28 PA++**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을 결합해 피부 부담을 줄이고 인색을 화사하게 유지해주는 CC크림. 매직 캡슐 공법을 적용해 백색 크림 재형이 피부에 닿는 순간 각자의 피부에 꼭 맞는 컬러로 변하면서 불규칙한 피부 톤과 잡티를 커버한다. 레시틴, 세라미드 등의 특허 성분인 풍부한 보습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피부를 더욱 건강하고 매끈하게 가꿔 주고, 스킨 미네랄 성분이 피부 표면의 건강한 빛과 윤기를 표현해준다. 더불어 피부에 강한 세럼 질 파우더 성분을 더해 화사함이 12시간 동안 지속된다. 30ml 4만2천원, 문의 080-727-5252 에디터 **김유진**



# new Whitening

화장품이야말로 현대 과학의 결정판이 아닐까. 여성들의 영원한 소망인 깨끗하고 맑은 피부를 위해 최첨단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신제품 화이트닝 코스메틱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차례로) **크리나크 이븐 베이트 디크서블 코렉터** 립스틱처럼 작은 화이트닝 아이 케어 제품. 눈가의 부기를 완화해주는 콜링 마시지 스틸 볼이 달려 있어 칙칙한 눈가에 확실한 화이트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냉창고에 넣어두고 차갑게 사용해도 좋다. 10ml 4만1천원, 문의 02-3440-9627

**광랑 블랑 드 펠 메디피징 하이드레이팅 에멀션** 실크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텍스처가 특징인 화이트닝 에멀션. 끈직한 화이트닝 에센스가 부딪스러운 여성들에게 추천한다. 보습 효과가 뛰어나 화이트닝 성분의 흡수를 돕고, 보습보충한 미유리감이 독특하다. 50ml 9만3천원, 문의 02-3438-9627

**에스티 로더 사이버 화이트 HD 어드밴스드 스카트 코렉팅 에센스** 수분 함유가 뛰어난 증발은 화이트닝 에센스. 항자극 식물도 일러진 황금의 뿌리에서 추출한 90% 농도의 활성 성분이 담겨 있어 전체적으로 피부 톤을 교정해주는 효과가 뛰어나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화이트닝 라인인 민들레 추출물도 들어 있다. 30ml 15만원, 문의 080-347-0089

**리프라이 화이트 케어아 일무아이드 스카트 트리트먼트** 눈가를 마사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터가 달려진 스카트 케어 제품. 눈가 일러진 작은 디크 스카트 직접 사용하면 된다. 골든 케어 추출물과 비타민, 오메가 3를 담았다. 다양한 종류의 아이크림을 선보인 리프라이의 최신 제품이다. 4ml 19만1천원, 문의 080-511-6626

**카멜레온 수분 크림** 색소침착으로 생긴 기미와 잡티는 물론 숨어 있는 멜라닌 생성까지 억제하는 화이트닝 크림. 수분 제형으로 유명한 카멜레온의 제형인 민들레 클리세린과 세라마이드 성분의 확실한 수분 공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격 대비 용량이 많고, 수분 공급 기술과 화이트닝 기술을 겸용한 스마트한 아이템이다. 50ml 9만9천원, 문의 080-022-3332

**달랑 멜라퍼펙트 인티-디크 스카트 퍼펙팅 트리트먼트** 색소침착 흔적을 낫는 멜라닌 당이 라를 분해하는 능력을 갖춘 디크 스카트 전용 화이트닝 세럼. 살리실산이 캡슐형으로 들어 있어 각질과 함께 화이트닝 유효 성분으로 분해된 멜라닌 색소가 제거된다. 촉촉한 텍스처도 매력적이다. 50ml 18만원, 문의 02-3440-2786

**랑콤 블랑 엑스퍼트 멜라노리저 스카트 에어저** 10년이 넘게 랑콤의 화이트닝 라인을 대표해온 스카트 에센스. 멜라닌을 자연 분해하는 과정에서 디크 스카트 생성을 억제하는 피부 본연의 능력을 활성화하는 원리로, 멜라닌 입자가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고질적인 디크 스카트에도 효과적인 제품이다. 30ml 14만2천원, 문의 080-022-3332 에디터 **배미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겐조 플라워바이 겐조** 붉은 포피 꽃을 담은 유선형 보틀이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손색이 없는 파우더리 플로럴 향수. 불가리아 로즈와 파르마 바이올렛, 바닐라, 화이트 마스크가 아우라진 산성하고 화려한 부케 다발을 완성했다. 여기에 사 이클로살과 헤더온, 민다리날을 더해 시간이 지나도 은은한 잔향이 지속된다. 30ml 6215천원, 문의 080-344-9500

**마크 제이콥스 오 플라 선샤어 오드 투왈렛** 눈부신 햇살을 담은 듯 명랑하고 쾌활한 즐거움이 느껴지는 마크 제이콥스의 선샤어 에디션. 그중 카리브 핑크 꽃 보틀이 눈에 띄는 오라녜보다 더욱 생동하고 생기 넘치는 향으로 변신했다. 라즈베리, 화이트 스트로베리의 스파클링한 톱 노트와 핑크 목련 향의 미들 노트, 관능적인 잔향을 책임지는 샌드우드와 통가 빈의 바닐라 베이스 노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50ml 8214천원, 문의 02-3443-1805

**겔랑 라 썬트 로브 노외르** 2년 전 처음 출시되어 사랑받은 라 썬트 로브 노외르가 체리, 파슬리, 로즈를 더해 더욱 로맨틱한 향으로 거듭났다. 체리, 애플, 블랙 커런트의 싱거운 과일 향이 향 잔향을 지배하며 새벽 이슬을 맞은 듯한 로즈, 제스민, 오렌지 블러섬의 부케가 생생하고 은은한 향을 내뿜는다. 여성스러운 보틀과 거꾸로 세운 히트 캡이 블랙 드레스 프린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30ml 7216천원, 문의 02-3438-9627

**이스 유작 모노디 오데 파퓸** 진주란 천연 에센스의 풍격을 담은 스위스 프라미엄 향수 브랜드 이스 유작이 국제에 선했다. 핑크 필름과 무스와 갈바눔으로 시뮬해 로즈와 프라지아의 향이 이어지다가 캐리멜과 샌드우드로 마무리되는 스파클링 프루티 향수.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상쾌함을 머금은 달콤한 향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50ml 21천원, 문의 02-525-5038

**조 말론 런던 레드 커런트 앤 크림** 디저트의 달콤한 맛과 다채로운 컬러를 향기로 즐겨보자. 선명한 스칼렛 컬러의 레드 커런트, 딸기와 화이트 마스크가 더해져 상큼한 딸기와 라즈베리가 폭신한 크림을 지배하며 새벽 이슬을 맞은 듯한 로즈, 제스민, 오렌지 블러섬의 부케가 생생하고 은은한 향을 내뿜는다. 여성스러운 보틀과 거꾸로 세운 히트 캡이 블랙 드레스 프린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30ml 8215천원, 문의 080-990-8869

**발랑 이보아르** 발랑의 향수를 이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다. 1980년대 처음 출시된 이보아르를 재해석한 향수로 파리 오페라 하우스 계단을 내려가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향으로 표현했다. 바이올렛 애플 기린 오렌지와 민다리 에센스가 향의 시작을 알리며 베티버와 시더우드를 강조한 바닐라로 중독성 있는 향을 완성했다. 30ml 7218천원, 문의 080-800-8809

**에르메스 쥘리 데르메스** 하우스의 조향사 장 클로드 알라나, 아트 디렉터 피에르 알렉사 뒤마, 슈즈 디자이너 피에르 하디 등 장인 3명이 향수 제작에 참여한 이례적인 제품. 빛에서 영감을 받아 외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내적인 부드러움까지 비추는다는 콘셉트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유아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풍성한 화이트 플로럴 향을 담았다. 50ml 13213천원, 문의 080-990-8869

**디파르 로 드 34** 디파르의 프레스티지 컬렉션인 34번가 생 제르맹 라인에서 신제품이 출시됐다. 자몽과 레몬의 시트러스 향으로 시작해 무화과 나뭇잎 향이 뒤따라다가 센수얼한 마스크의 조화로운 향으로 마무리되어 기존의 생 제르맹 오드 투왈렛보다 더욱 신선하고 강한 우디 향을 느낄 수 있을 것. 화이트 컬러의 무늬는 34번가를 상징하는 로고를 유려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50ml 14215천원, 문의 02-514-5167 에디터 **이예진**

# Scent strip

싱그러운 과일과 달콤한 꽃을 담은 로맨틱한 향기가 봄바람에 실려 여자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지금 화장대 위에 올려두어야 할, 봄을 위한 새로운 향수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attraction Zone

패션과 뷰티는 물론 예술과 디자인까지 한 공간에서 천천히 둘러보고 문화를 향유하는 슬로 쇼핑을 제시한 10 포르소 꼬모. 이는 국내에 라이프스타일을 접목한 콘셉트 스토어가 뿌리내리게 한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10 포르소 꼬모 에비뉴엘이 남긴 강북의 새로운 쇼핑 문화와 그 발자취를 되짚어보았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국내 쇼핑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밀라노의 10 포르소 꼬모는 갤러리스트이자 패션 저널리스트인 까를라 소짜니가 1991년에 만든 콘셉트 스토어다. 기존 패션 스토어에서 탈피해 슬로 쇼핑(Slow Shopping)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철학을 제시한 이곳은 패션과 뷰티, 책, 인테리어 오브제, 카페까지 한 공간에서 윌스톱으로 만나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디자이너의 옷은 물론, 리빙 소품과 먹고 마시는 음식까지 한곳에서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테이스트가 담긴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하는 쇼핑 방식을 최초로 제시한 것. 이곳에서는 당대 가장 핫한 디자이너의 컬렉션 피스와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콜라베이션 제품, 나아가 실험적인 주얼리와 아트 피스, 명품 하우스의 빈티지 컬렉션 등을 소개한다. 그 때문에 매 시즌 밀라노 패션 위크에 참석하는 에디터와 바이어 등 패션 파플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밀라노의 트렌디한 패션 스폿이 해외 첫 매장을 서울에 오픈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패션계는 물론 문화 산업 전반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음은 물론이다. 2008년 청담동에 오픈한 10 포르소 꼬모는 밀라노 10 포르소 꼬모의 쇼핑 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패션, 디자인, 서적, 음악을 위한 공간과 가든을 포함한 카페, 레스토랑으로 구성했으며, 국제적인 수준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 소개하고 있다. 그 결과 글로벌한 문화와 국제적인 트렌드를 접목한 스폿으로서 2010년 1월 뉴욕 타임스에 '2010년 꼭 가봐야 할 31곳' 기사에 소개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과 문화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 강북에서 즐기는 슬로 쇼핑, 에비뉴엘 10 포르소 꼬모

청담동에 위치한 10 포르소 꼬모 서울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쇼핑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리고 2012년, 3월 명동의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스토어에 10 포르소 꼬모 월드 와이드 3호점이자 두 번째 서울 매장을 오픈하기 이른다. 10 포르소 꼬모는 하나의 도시에 1개의 스토어만 오픈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기에 에비뉴엘 오픈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설립자 까를라 소짜니는 서울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강북에도 10 포르소 꼬모의 독특한 철칙인 슬로 쇼핑을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러 개의 브랜드 매장이 붙어 있는 백화점에서 슬



로 쇼핑이라니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지는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롯데백화점과 에비뉴엘 사이에는 녹음이 우거진 가든으로 공간을 조성해 들어서는 순간부터 10 포르소 꼬모의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가든을 통해 건물로 들어오면 갤러리 콘셉트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직행해 곧장 10 포르소 꼬모로 연결되게 한 것. 창이 없다는 백화점 건물의 특성을 깨고 매장 한쪽과 카페에 창을 내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알리아, 델보 등 트렌드의 정점에 있는 패션 브랜드부터 뷰티와 서적, 인테리어 오브제까지 한눈에 펼쳐지며 카페에서 식사와 커피를 즐기는 10 포르소 꼬모만의 쇼핑 문화가 백화점이라는 공간에 담겼다. 올해로 오픈한 지 1년이 되는 10 포르소 꼬모 에비뉴엘점의 성공적인 인착은 강남과 강북의 경계를 부수고 콘셉트 스토어를 즐기는 이들이 많아졌으며 패션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수준이 매우 세련되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강북의 쇼핑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지금, 10 포르소 꼬모 에비뉴엘이 지역의 쇼핑 문화를 바꾸고 국제적인 콘셉트 스토어로 자리매김하기 기대해본다. 문의 02-2118-6095 에디터 **이예진**

## 10 포르소 꼬모 서울이 오픈 5주년을 맞아 마련한 두 가지 이벤트

- 1 퍼터 린드버그 (Images of Women)**  
전시. 3월 22일~4월 28일까지 10 포르소 꼬모 청담 플래그십 특별 전시 공간.
- 2 10 Corso Como Seoul Melody.**  
10 포르소 꼬모와 SM 엔터테인먼트의 프로젝트로, '10 포르소 꼬모 서울 멜로디 컴필레이션 앨범과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의 콜라베이션으로 탄생한 5개의 리미티드 에디션 3월 28일 에비뉴엘 스토어에서 론칭.

- 1 롯데 에비뉴엘 5층에 위치한 10 포르소 꼬모. 백화점에는 창문이 없다는 공식을 깨고 여성 색감과 카페에 창을 내 은은한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했다. 2 쇼핑 후 인아서책을 보거나 커피, 와인 등을 즐기게도 좋은 10 포르소 꼬모 에비뉴엘의 카페. 3 라이프스타일 잔향을 아우르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리빙 용품, 디자인 오브제 등을 만날 수 있다. 4 10 포르소 꼬모 에비뉴엘을 대표하는 브랜드 델보의 레드 컬러 트랙백. 5 스킨톤의 알리아아 슈즈. 6 2 크로스 루스의 쿼터리 백과 블랙 네크리스.





# Slip magic

반짝이는 보석 장식과 생동감 넘치는 컬러, 화려한 패턴으로 무장한, 봄을 위한 슬림은 슈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프랑스 공장에서 신던 실내용 구두에서 유래한 슬림은 슈즈는 여성성의 속살을 원피스처럼 구분 없이 하나로 이어진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 덕분에 젊은 명칭이라는 얘기가 전해진다. 요즘엔 끈이나 버클 등 발등을 조이는 장식이 없는 남자 신발을 총칭하는 말로, 턱시도에 어울리는 포멀한 스타일부터 고무창이 달린 캐주얼한 스타일까지 디자인이 다양하다. 남자 구두 디자인에서 유래한 만큼 여성용 슬림은 역시 매니시한 무드가 강조되는데, 올봄에는 대담한 보석 장식과 알록달록한 컬러, 다양한 소재를 더해 화려하게 거듭난 것. 낮은 굽이지만 매끈한 라인과 여성스러운 장식 덕분에 드러서한 느낌을 주며,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이지시크 스타일링을 완성하기에 제격이다. 발등이 시원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인 만큼 롤업 팬츠에 경쾌하게 연출하거나 가벼운 저지 롱 드레스에 매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트렌디하게 연출하고 싶다면 셀러브리티의 파파라치 컷에서 힌트를 얻어도 좋는데, 알렉사 청차림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벨벳 슬림은 슈즈에 소프트 팬츠를 매치해 풀한 러던너 스타일을 완성하거나, 하얀색 양말을 주름 잡아 신어 어반 시크 스타일을 완성한 클로에 세바니를 참고할 것. 2013 셀러브리티 컬렉션에서 보듯 활영한 크롭트 팬츠와 새틴 드레스를 매치하면 지적인 압티온 스타일을 완성하는 최상의 선택이 될 듯. 특히 벨벳 소재나 시퀀 장식은 이브닝 슈즈의 대안으로 삼아도 좋을 만큼 포멀한 느낌을 인가해주기에 격식 있는 모임에서도 빛을 발할 것이다. 에디터 **이예민**

(맨 위부터 차례대로) 볼드한 스타드 장식으로 화려하고 과감하게 연출할 것. 부드러운 크림 컬러의 스웨이드 슬림은 슈즈 1백97만원 **크리스틴 루부랭**, 문의 02-6905-3795. 발등에 여우 캐릭터가 그려진 레드 컬러 벨벳 슬림은 슈즈 40만원대 **벨트로 by 주니세라**, 문의 02-515-3151. 알록달록한 주얼 장식으로 룩에 경쾌함을 살리자. 진한 옐로 컬러의 송이가지족 슈즈 98만원 **프라다**, 문의 02-3218-5331. 반짝이는 블랙 시퀀 장식의 플랫 로퍼, 리본 장사에 골드 버클로 단조로움을 피했다. 1백30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44-1727. 체크 패턴의 슈즈 50만원대 **벨트로 by 주니세라**, 문의 02-515-3151. 진한 실버 스톤 장식이 옷차림을 화려하게 완성해줄 슬림은 슈즈 2백만원 **주세페 자노티 by 코브누아**, 문의 02-3785-2012. 태슬 장식이 밝은 연두빛 슈즈 94만원 **주세페 자노티 by 코브누아**, 문의 02-3785-2012. 세련된 레오파드 프린트 슈즈 83만원 **지미유**, 문의 02-3443-4570.

스타일링: 유원정

# Italian touch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컬러, 클래식한 가죽 향과 탄력 있고 부드러운 감촉, 유행을 타지 않는 베이직한 디자인. 이는 바로 이탈리아 전통 소가죽 액세서리 브랜드 '일 비종페(Bisonte)'의 아이덴티티이자 그들을 대표하는 아이템에 대한 묘사이다. 최고급 들소가죽을 사용해 멋스럽고 개성 있는 컬렉션을 선보이는 일 비종페는 자유롭고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이들을 위한 프리미엄 가죽 브랜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이탈리아 프리미엄 소가죽을 만나다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일 비종페(Bisonte)'는 창립자 안토니오 와니 디 필리포가 피렌체에서 탄생시킨 이탈리아 전통 소가죽 액세서리 브랜드다.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일본에서는 26개의 단독 매장을 운영하며 20~30대 젊은 소비자층에 이미 잘 알려진 인기 브랜드로, 일본은 물론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 2백여 개가 넘는 디자인 편집숍에서 소개되고 있다. 일 비종페는 이탈리아어로 들소(The Bison)란 의미에서 출발했다. 들소 컬렉터이자 개성 넘치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외의 많은 블로거에게 주목받는 창립자 와니 디 필리포는 브랜드 디자이너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표현하는 동시에 최고급 소재를 심플하고 우아하게 정제해 일 비종페만의 스타일을 탄생시켰다. 가방을 중심으로 지갑, 파우치, 벨트 등 다양한 가죽 제품을 선보이는데, 소가죽에 대한 브랜드만의 노하우와 자부심을 더해 최고급 가죽 소재에서만 느껴지는 클래식한 가죽 향과 견고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에 가까운 소가죽을 사용하고 대대손손 내려오는 식물성 태닝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 특히 밤나무의 줄기에서 발견한 타닌이라는 활성 성분인 소가죽을 부드럽고 내구성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그윽하고 따뜻한 금빛으로 자연스럽게 물들인다. 모든 제작 과정은 숙련된 장인의 손을 거쳐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것을 기본 신념으로 삼아, 미적 편안함과 기능적 단순함을 결합해 소재가 제품의 기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일 비종페의 모토. 디자인과 소재, 가죽과 패브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연 2회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며 한국에서는 신사동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48-2992 에디터 **권유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초콜렛 브라운 컬러의 토트백 35X22cm 92만원~97만원, 실용성이 높은 라이트 베이지 컬러의 호보백 23.5X22.5cm 58만원, 유연하게 차지는 가죽이 멋스러운 초콜렛 브라운 컬러의 숄더백 42X24cm 97만원, 가죽 스톤 커버 가격 미정, 벨트 형식의 클로저 장식이 눈에 띄는 캐주얼 컬러 백백 34X39cm 1백19만원, 내추럴한 무드를 느낄 수 있는 캐주얼 컬러 리운드 숄더백 25X30cm 59만원~73만원, 카키 컬러의 미니 숄더백 17X14cm 63만원, 카우폴라주 패턴이 트렌디한 지갑 10X18cm 31만원, 소가죽에 약이 가죽 질감을 표현해 럭셔리함을 더한 지갑 10X18cm 31만원, 모두 **일 비종페**.





# spring Accent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니 남자들의 타이 스타일 역시 한층 산뜻해졌다. 비비드한 옐로, 오렌지 컬러부터 우아하고 세련된 파스텔컬러까지 V존을 화사하게 살려줄 스프링 타이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캐주얼한 그래픽 패턴이 돋보이는 슬림 타이 가격 미정 **바버리 프로셀**, 슬림한 디자인과 조작성이 느껴지는 실크 소재가 트렌디한 그린 컬러 타이 37만원 **브리오니**, 도트 패턴으로 젊은 감성을 다한 파스텔 블루 컬러 타이 24만원 **에르메네제쥬 제나**, 플라워 패턴이 화려한 실크 타이 10만원대 **캘리포니아**, 다이아몬드 패턴의 오렌지 컬러 타이 43만원 **키엔**, 산뜻한 옐로 컬러와 진지한 도트 프린트가 조화를 이룬 타이 10만원대 **나나리치 액세서리**, 각자 무늬가 감각적인 자켓형 실크 타이 19만원 **휴고 보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통하게 표현한 파스텔 블루 컬러 타이 20만원대 **루이 비통**, 에디터 **권유진**

루이 비통 02-3444-1727 바버리 프로셀 02-3485-6583 브리오니 02-6905-3760 에르메네제쥬 제나 02-511-0285 캘리포니아 02-2076-7661 키엔 02-6905-3787 나나리치 액세서리 02-2076-7661 휴고 보스 02-515-4088

스타일링: 유정훈

# first-class Vodka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반짝 타오르다가 소멸하는 불꽃이 아니라 은근히 산불처럼 번져나가는 성장세가 놀라운 보드카 시장. '불황의 무풍지대'인 보드카의 세계에서 증류주 애호가라면 눈독을 들일 만한 '강력한 녀석'이 한반도에 상륙했다. 시리도록 투명한 색을 품은 깨끗한 시베리아 청정수와 명품 보리로 빚어낸 고풍적인 맛의 프리미엄 보드카 벨루가(Beluga). 이는 보드카와 달리 오크 통 숙성을 거쳐 부드러운 질감과 은은한 맛의 격이 다르다는 이 '특급주가 많은 애주가들의 선택'을 부추기고 있다.

'불타는 물' 과학, 철학과 시학(詩學) 등을 두루 섭렵했던 20세기 프랑스의 지성으로 '몽상의 달인'이라 불리는 가스통 비슬리르의 술에 대해 이 같은 절묘한 별칭을 선사했다. 이러한 술의 이중적 성격은 동양의 사주 명리학에서는 '술은 액체이므로 기본적으로 물이지만 체내로 들어가면 불이 된다'는 해석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물과 불의 성질을 동시에 지닌 술, 그중에서도 '작은 불꽃처럼 순수하게 타오르는 맑은 물' 같은 증류주를 갈망한다면 과연 보드카(vodka)처럼 잘 어울리는 대상이 있을까? 슬라브어로 물이라는 의미의 '보다(voda)'에 작은 것을 뜻하는 접미사가 더해진 단어인 만큼 보드카는 그 어원에서 이미 '불의 물과 같은'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는 듯하다.

독하면서도 청순한 매력을 독특히 인정받으면서,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성장세가 심상찮은 보드카 시장에 '클래스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 프리미엄 제품이 등장했다. 이미 일부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주변 지인이 모스크바 출장을 다녀올라 치면, 모셔오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품목이라는 러시아산 명품 벨루가(Beluga), 한 모금만 들이켜도 가슴 한편이 타 들어가는 듯한 보드카 특유의 근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목 넘김은 상당히 부드럽고, 입안에 감도는 맛과 향취는 극도로 섬세한, 우아함과 강렬함의 품격 있는 하모니를 내세우는 '물건'이다. 지하 330m에서 끌어올린 시베리아의 청정수와 광활한 평원에서 엄선한 질 좋은 보리를 재료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이 제품은 다른 보드카와 달리 오크 통 숙성 과정까지 거친 '정인 정신의 산물'이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흑해와 카스피해(海) 캐비어를 뜻하는 벨루가라는 단어를 브랜드명으로 자신 있게 채택할 만큼 '슈퍼프리미엄'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흔히 보드카에 따라다니는 '믹솔로지(mixology)'의 미학에 부합될 자격은 차고 넘치도록 충분하지만 그 진가를 알려면 일단 스트레이트 잔으로 즐겨보라고 고집하는 벨루가의 팬들이 많은 것도 이러한 자긍심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짹짹한 올리브 한 알을 곁들여 보드카 토닉으로 마시거나 말이다.

은은하면서도 세련되고 독특한 이 보드카의 남다른 오라는 남성용 정장으로 치자면 '커빙이 예술'이지만 고답적이거나 알파카지 않은, 현대적인 중용의 미덕을 갖춘 말끔한 최고급 맞춤 슈트를 연상케 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프리미엄 멘즈 슈츠 멀티숍 유니페어의 강재영 대표는 구두로 비유하자면 벨루가는 스페인 브랜드 카르미나(Carmina)와 닮았다고 했다. 적당히 날렵하면서 품위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지난 2월 20일 벨루가 공식 론칭 파티가 열린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유니페어 매장에 '브랜드 앰배서더'로 모습을 드러낸 배우 이범수는 "40대 같이 않은 부드러운 이 있고, 깔끔하다"면서 "남성적인 맨시가 마음에 든다"고 평했다. "벨루가는 단순한 보드카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Attitude to Life)'라고 당당히 주장하는 이 청신하게 매혹적인 러시아산 명품 증류주가 '불꽃처럼 타는 물'의 새로운 문화를 빚어낼지 주목된다. 현재 국내 시장에 선보인 벨루가 브랜드의 제품은 노블(11만원)과 골드 라인(45만원)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30일, 후자는 90일의 숙성 과정을 거쳤다. 문의 02-2175-0024 에디터 **고성연**



1 보드카의 원조로 꼽히는 러시아산 중에서도 명품으로 통하는 벨루가. 1백 년 넘는 역사를 지닌 미란스키 증류소에서 '남달리' 오크 통 숙성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프리미엄 보드카이다. 지난 2월 20일 서울 신사동 남성 구두 편집 매장 유니페어에서 열린 벨루가 국내 론칭 행사에는 2백 명이 넘는 트랜드세터와 보드카 애호가들이 모였다. 2 벨루가의 플래그십 제품인 '노블(Noble)' 지난 3년 동안 (2011년 기준) 진출한 공항 면세점 수가 무려 10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역동적인 인기를 구가해왔다. 3 산뜻하면서도 은은한 벨루가의 맛과 남성적인 맨시가 인정받은 브랜드 앰배서더 배우 이범수. 4 우아한 격조와 현대적인 세련미의 조화를 칭송받은 벨루가와 비견되는 스페인 구두 브랜드 카르미나. 벨루가 론칭 행사의 행운권 상품으로 제공되기도 했다.





# 한옥의 재발견



1.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9년 기획전 '한옥의 재발견' 전시 공간

한옥 건축가들은 죽기 전에 꼭 한번 한옥에 살아보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양옥보다 수명이 긴 한옥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스타일리시하게 변신하고 있다. 한옥 갤러리, 한옥 호텔이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들은 한옥을 방문하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낀다.

## 한옥의 매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가 서도호의 대표작은 한옥에서 탄생되었다. 폴리에스테르 페브릭(Polyester Fabric)으로 만든 거대한 조형물은 바람이 불면 산들산들거리며 관람객의 마음까지 흔들어놓는다. 작가가 어린 시절 살았던 한옥은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기에 그의 작품으로 발현 되었을까? 작가는 알려졌지마 부친(父親) 서세옥 화백이 직접 지은 성북동 한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70~80년대는 우리나라가 근대화에 박자를 가하던 시기였기에 한옥보다는 양옥을 선호했다. 그래서 창덕궁 연경당 사랑채를 본떠 지은 한옥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작가는 우리와는 다소 다른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갖게 되었고, 이는 작가가 세계적인 미술가로 발돋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옥에는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한옥 건축가로 유명한 조정구 대표(구가도시건축)가 한옥에 살고 있는 경험자로서 한옥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한옥은 전문가로서 평가할 때 건축학적 요소를 제대로 갖춘 집입니다. 평범한 한옥일지라도 공간 구성과 건축 요소가 유명 건축가가 지은 현대 건축물보다 우수합니다. 하늘이 보이고 땅을 밟을 수 있는, 자연과 가장 가까운 집이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지요.” 한옥은 창과 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한지로 마감한 창과 문은 집 안과 밖의 구분을 개방적으로 확장시킨다. 돌과 나무, 종이로 이루어진 집 안에서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볼 수도 있다. 반면 양옥은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여 안과 밖의 구분이 분명해 자연과 단절되고 폐쇄적 사고를 유도한다. 그래서인지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미술가 서도호의 천으로 만든 집은 한옥이든, 뉴욕의 집이든 간에 방 안에서 밖이 보이고 밖에서도 안이 들여다보인다. 한옥에서 보낸 행복했던 경험이 작품을 통해 재현된 것이다.

##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옥이 출품된 이유

우리 가옥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옥은 레미콘이 시멘트를 쏟아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고 수리해야 하는, 정성을 담은 건축물하기에 더욱 정감이 간다. “우리 가족은 서대문 근처의 한옥에서 살고 있지요. 1958년에 지은 ㄷ자 모양의 한옥은 들쭉한 2칸 대청에 방이 크고 햇살이 잘 듭니다. 마당에는 정목대와 감나무 한 그루가 있어 가을이면 어른 주먹만 한 감들이 주렁주렁 열리지요.” 건축가 조정구는 4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흰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을 아랫목에서 바라본다. 조정구 대표는 편안하지만 아름다운 한옥의 무덤덤함 속에서 건축가로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한다. 그가 한옥을 건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마당이다. 크고 작은 마당을 어떻게 정하고, 부엌과 방과 대청이 어떻게 소통하게 하느냐가 설계의 기본이 된다. 그런 점에서 한옥의 마당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빨래를 널고, 시래기를 말리고, 잔치를 벌이며, 햇빛과 바람이 통하는 공간인 셈이다. 2000년부터 북촌의 한옥을 시작으로 한옥 건축가로서 많은 작품을 선보인 조정구 대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대문 한옥을 2010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에서 선보이며 외국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옥이 이렇게 매력적임에도 보편화되지 않는 것은 한옥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한옥은 화재에 취약하며, 치안에 약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옥은 구조가 견고해 화재가 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자체적으로 지연 효과를 내다가 한참 후에야 불이 타기 시작한다. 또 도시 한옥은 처마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이 담을 넘기 어렵다. 많은 이들이 한옥은 양옥보다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지금 서울에 남아 있는 한옥은 40~80년 전에 지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여전히 거뜬하다. 오히려 아파트와 같은 현대 건축물들은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고려해야 하지만, 한옥은 1백50년은 버틸 수 있다. 부분부분 수리해준다면 2백 년 이상도 거뜬히 버틸 수 있다고 한다.



2.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9년 기획전 '한옥의 재발견' 전시 공간

1. 조정구 기획동에 지리한 한씨 한옥은 비개발 한옥으로서 일본 미술가 타츠오 미야자마의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었다. 이 작품은 '제인징 타임 워드 제인징 셀프 코리아 버전(Changing time with changing self Korea version)'으로 관람객들은 헌반 작품에 비친 자신을 볼 수 있었다. 2. 우리나라의 숲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 '타임 피어어 더 기든 랜턴(Time fire in the garden lantern)', 타츠오는 일련의 반복된 숫자 작업을 통해 실과 죽을, 윤곽의 문자를 다루고 있다. 작가는 그의 작품에 숫자 '0'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인데, 그 이유는 그에게 있어 숫자 '0'은 무(無)의 개념이기 보다는 공간(空)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3. 어린 시절에 지었던 한옥에서 모티브를 얻은 서도호 작가의 작품 '휴영'. 4. 서울미술관에서 열렸던 서도호 개인전 전경.

3.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9년 기획전 '한옥의 재발견' 전시 공간

## 우리도 한옥에 살고 싶다

점차 입소문이 나다 보니 한옥에 살고 싶어 서촌이나 북촌으로 이사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이사하기 어려운 이들이라면 한옥을 개조한 병원이나 동사무소, 레스토랑을 이용하면서 특유의 운치를 느껴 보아도 충분하다. 한옥의 다채로운 공간은 각기 매력적이지만, 한옥의 장점이 가장 돋보이는 것은 갤러리가 아닐까 싶다. 소격동의 학고재 갤러리, 가회동의 가회동 60 갤러리, 안국동의 아트 링크 갤러리, 서촌의 류가현 등은 별이 잘 들고 오픈된 구조로 관람객의 동선이 자유로운 한옥의 매력이 잘 드러난 매력적인 건축물이다. 덕분에 그곳에 전시된 작품들이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최근엔 한옥을 주제로 한 전시도 이어졌다. 가회동 178번지 한씨 가옥에서는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과 일본 미술가 미야자마 다쓰오의 전시가 열렸으며,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열린 컨템포러리 한옥 전시는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씨 가옥에서 열린 <한옥을 찾아 떠나는 시간 여행>이 특별했던 것은 평소에는 공개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오래된 한옥이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두 달 동안 공개되었다는 점이다. 일본 나오시마에서 미야자마 다쓰오의 스튜디오를 방문해 마음 깊이 감동한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은 그의 작품을 서울에서 전시하기로 결심했다. 북촌 한옥마을을 가는 길에 위치한 한씨 가옥은 평상시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닫혀 있다. 서울시 민속자료 제14호이기도 한 이곳은 조선 정조 때 병조판서 최주보의 첩이 아들과 함께 눈물로 밤을 지새던 비운의 고백으로 알려져 있다. 한옥의 매력은 바로 이런 역사성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살지는 않지만 몇 번의 수리를 거쳐 여전히 아름다운 이 고백에서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의 한복을 입고 미야자마 다쓰오의 첨단 LED를 소재로 한 작품을 감상하는 특별한 재미를 제공했다. 밤에 더욱 아름다운 LED 소재인 만큼 전시는 오후부터 시작되었는데, 한씨 가옥의 정원은 낮에 보아도 아름답다. 작약과 창포가 형형색색 아름다운 정원은 과연 조선 시대 세도가의 집이다. 미야자마 다쓰오의 작품으로 고백의 현판을 대신했는데, 작가는 가을 같은 현판에 관람객의 얼굴이 비치는 순간을 시간과 작품과 공간이 모두 투영되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했다.

## 고백의 숨겨진 이야기들

바로 근처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잠시 거주했던 곳으로 유명한 부티크 호텔 '취운정'이 있다. 원래의 취운정은 일제강점기에 헐렸고, 취운정이 있던 일대가 취운정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 시대 취운정은 명문 세가들이 교류했던 곳이며, 19세기에에는 김옥균, 홍영식 등 유국지사들이 구국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던 병조판서 최주보가 취운정에서 동성에 논란에 휩싸인 비하인드 스토리이다. 첩에게도, 정실 부인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던 최주보는 아름다운 남자, 가부벌감 이해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고 한다. 질투하던 정실 부인이 이색을 유혹했고, 결국 모두가 파멸에 이르렀다. 현재의 부티크 호텔 '취운정'이 그 정기를 이어받았으니 그곳에 가면 조선 시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자꾸만 떠오를 것 같다. 취운정은 한옥 호텔이지만 공간이 전시도 연다. 지난해 열린 <봄 한옥에서의 오수>는 취운정에 전시된 이정실 목수가 만든 탁자와 의자를 구경한 후 1시간 30분 정도 낮잠을 즐길 수 있는 체험 전시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렇듯 북촌의 취운정, 락고재 등 한옥 호텔이 주목받고 있으며, 한옥은 더 이상 불편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널리 인식된 것 같아 반갑다. 특히 경주의 한옥 호텔 라궁은 드라마 <꽃보다 남자>, <식객>, <선덕여왕> 등에 등장해 더욱 인기가 높아졌는데, 현대적으로 지은 한옥 건축물이어도 운치는 여전하다. 각 객실마다 설치한 노천탕에서 스파를 즐기는 것은 21세기적인 즐거움이지만, 노천탕에서 올라다보이는 처마와 파란 하늘은 한옥의 또 다른 낭만을 느끼게 해준다.

## 현대 한옥은 진화한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열린 <현대 한옥>은 현대의 생활 방식에 따라 진화한 도시 한옥을 대표 건축가 4인의 프로젝트를 통해 살펴보는 전시이기에 한옥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였다. 한옥 건축가로 유명한 김용미, 김중현, 조정구, 황두진 등 4명의 작품을 실사 혹은 모형으로 전시했고,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백승호와 윤준환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의 최정은 관장은 옛 건축물로서 한옥의 매력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한옥이 앞으로 나아가길 모색



5, 6. 건축가 조정구의 설계로 지어진 경주의 한옥 호텔 라궁. 이곳은 경주에 가면 꼭 한번 방문해야 할 곳으로 유명하며 건축가는 이곳에 숙박하는 것만으로 경주의 모든 정취를 다 느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한다. 7. 김용미 건축가의 남산 국악당 전경. 건축가는 지하의 현대식 문화 시설과 지상의 전통 한옥의 구조를 결합한 이 작품으로 2009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8.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2012년 상반기 기획전 'CONTEMPORARY Han-Ok'을 개최했다. 이 작품은 백승호 작가의 '중립차원-부유하는 건축으로, 기느리단 선재로 한옥의 지붕을 표현하여 마치 3차원의 공간 속에 드로잉을 한 것처럼 입체와 평면을 넘나든다. 9. 윤준환 사진작가의 '경남의 한옥 시리즈' 중 '청년 삼씨 고개'. 관람자들에게 한국 고유의 집, 한옥이 사라져 가는 옛 것이 아니라 우리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현대생활에 적용하고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양하게 확장, 변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자 했다.



하려는 것이 전시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옥은 거리를 두고 관조하는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시는 한옥은 옛것이 아니라, 현대 생활에 적용하고 과학 기술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더욱 진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현대적 한옥은 전통 한옥을 계승하는 데 더 이상 목적을 두지 않는다. 한옥과 양옥의 장점을 결합한 대표적인 건물로는 김용미 건축가의 서울남산국악당을 꼽을 수 있겠다. 외관을 보면 영락없는 조선 시대 사대부의 으리으리한 집이다. 하지만 그 내관은 현대적인 콘서트 홀이라 놀랍다. 김용미 건축가는 지하의 현대식 문화 시설과 지상의 전통 한옥의 구조를 결합한 이 작품으로 2009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목재 수축에 의한 하자 발생을 차단하고, 대규모 공간 건립을 가능하게 하는 공학 목적을 사용합니다.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기계지목과 조립 방식을 채택했고, 고단 열 고기밀 벽체, 유리와 한식 창호를 결합한 고기밀 창호를 사용해 저에너지 공학 한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건축가의 고민으로 이렇게 한옥은 점차 진화하고 있다. 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한 2011 올해의 건축 베스트 7에 포함된 조정구 건축가의 롯데부여리조트 백상원은 현대적 리조트에 한옥 화랑을 결합한 특별한 작품. 서양식 건축물인 리조트 건물에는 서도호 작가의 작품처럼 한옥 한 채가 뾰족이 튀어나와 있어 호기심을 자극한다. 21세기 건축물에 18세기 한옥이 타임머신을 타고 충돌한 것 같다. 과거의 것을 똑같이 계승한다고 해서 찬사받는 시대는 지났다. 조정구 건축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대 한옥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사한다는 점이라고 이야기한다. 한옥에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한옥에서 체험하는 즐거움이 신선하지 않다면 굳이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한옥의 지속 가능한 매력과 한옥을 다시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옥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건축가들에게는 도전 의식을 고취시킨다. 길으로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안에 앉으면 상상이지만 못한 다른 풍경이 보이는 것, 그것이 한옥의 매력이자 우리 문화의 장점인 것이다. **SI** 글 이소영(사천미술에 중독하다), (서울, 그카페 홀더의 저자)





바다로부터 전해지는 풍요로움

# Prunier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 일컬어지는 파리의 샹젤리제 크트머리에서 아름다운 레스토랑이 한 곳 눈에 띈다. 프뤼니에르는 1872년부터 신선한 해산물을 전문으로 요리하는 진정한 파리지엔 레스토랑이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생선 요리와 굴, 조가비를 가장 신선한 상태로 서비스하는데, 특히 긴 역사와 전통을 잇는 프뤼니에르의 대표 메뉴는 캐비아이다. 미술생 가이드에서 2 스타를 획득한 프랑스의 스타 셰프 에릭 쿠아셀(Eric Coisel)은 이 모든 해산물의 신선도는 최고로 유지하고 재료 고유의 맛을 최대한 살리며 심플하게 조리하되,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한 예술 요리의 진수를 보여준다.



## 최고의 재료와 맛, 예술을 고집하는 셰프 에릭 쿠아셀

에릭 쿠아셀은 신선한 생선 요리와 송로버섯, 해조류 등을 이용해 모던한 요리를 선보이는 셰프로 이미 프랑스에서는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그는 해조류(김, 다시마, 미역, 그 밖에 다양한 해조류)를 자신의 모던한 조리법에 접목한 레시피 책을 출판한 적이 있다. 한국 친구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김과 다시마의 맛에 매료되어 사양인들은 먹지 않는 미역 등 동양인만의 해조류, 그리고 사양인들만이 즐기는 해조류 등을 리서치하기 시작하면서 해조류가 건강에 매우 좋은 식재료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 유럽인들이 까치는 식감을 지닌 해조류들을 메뉴에 넣기 위해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했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는 현재 연어와 김, 가리비와 송로버섯 등 다소 생소한 음식 공합을 개발하며 새로운 메뉴들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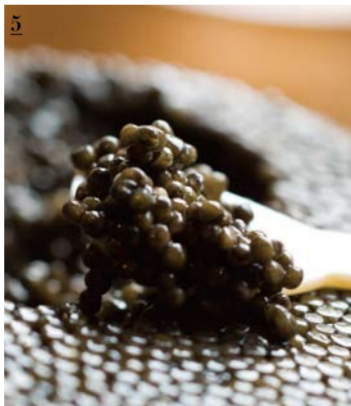
## 매종 프뤼니에르의 역사

매종 프뤼니에르의 역사는 알프레드 프뤼니에르 가족의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1848년에 태어난 그는 일찍이 가족을 떠나 파리 바스티옹에서 일을 시작했고, 처음으로 와인과 석화의 진장한 풍미를 알게 되었다. 1872년 24세의 나이에 그는 아내 카트린과 함께 석회를 전문으로 하는 첫 번째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여기서 레스토랑 프뤼니에르의 역사가 시작된다. 레스토랑 프뤼니에르는 점점 번성해 정자까지 에데터, 사립가가 모여들었고 프랑스 최고의 귀족들에게도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다. 1898년 봄, 알프레드 프뤼니에르는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아들인 에밀(Emile)에게 사업을 물려주었다. 당시 에밀은 22세의 젊은 나이였으나 어릴 적부터 레스토랑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자란 덕에 승승장구하는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노르웨이로 신흥여행을 떠났던 그는 베르겐 생선 시장의 깨끗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살아 있는 생선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가지고 다니며 생선을 샀고, 어부들의 작업 방식도 매우 조직적이고 위생적이었다. 곧 그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프랑스에 도입할 방법을 고민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석회 전문 레스토랑에서 생선과 해산물 요리를 취급하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발돋움을 꾀하며 식사 순서까지도 레스토랑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고안했다. 그리고 놀랄게도 이 룰은 현재 프랑스의 해산물과 생선 요리를 즐기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했다. 에밀 프뤼니에르가 선보이는 신선한 해산물 요리는 최고의 바다 내음을 고객들에게 선보였고, 그것은 다른 레스토랑의 요리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찬사를 들었다.



## 가장 프랑스적인 아르데코 장식의 레스토랑

모던한 프랑스 디자인의 대표를 이야기한다면 단연 아르데코풍 장식 이 선두에 놓일 것이다. 레스토랑 프뤼니에르 역시 아르데코풍 타일과 모자이크, 스탠실 포스터 등, 레스토랑의 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다. 1924년 에밀 프뤼니에르는 레스토랑을 파리의 상류사회를 선도하는 장소로 탈바꿈시키려 했다. 그는 곧 건축가 루이 히폴리트 부알로(Louis Hippolyte Boileau)와 화가인 레옹 카리에르(Leon Carrriere)를 초대해 인테리어 건축과 벽 장식의 의뢰했으며 폴 비네(Paul Binet)에게는 유리창 조각을, 오귀스트 라부레(Auguste Labouret)에게는 모자이크를 주문했다. 또 당시 (하바스 바자)의 아트 디렉터였던 알렉세이 브로도비치(Alexei Brodovitch)에게는 생선과 해산물을 그린 동판화 포스터를 제작하게 했다. 당시 프뤼니에르의 인테리어 데카데이션은 프랑스와 유명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아르데코의 정수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또 현재 음식을 담는 플레이트들은 브르타뉴 지방 노르망디 마린의 느낌을 실려 제정한 마튀랭 메유(Mathurin Meheu)의 수공예 작품들이다. 프뤼니에르는 현재 레스토랑과 바, 카페, 그리고 해산물 스토어로 이루어져 있다. 프뤼니에르 스토어에 진열된 상품들을 보고 있으면 최상의 품질만을 고집하는 그들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최근에는 프뤼니에르 팀이 모로코의 마라케시에 있는 이브 생 로랑의 별장인 마조렐 정원에 아름다운 카페테리아를 만들어 또 한 번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신선한 볼라방이 불기 시작할 때, 프뤼니에르의 작은 테라스에 앉아 파리의 볼 햇살을 만끽하자, 그리고 입안에서 허를 통해 느껴지는 최고의 미각을 함께 경험해보자, 진정한 파리지엔의 라이프스타일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글 **지은경** 유럽 통상팀



1 프뤼니에르 레스토랑의 아늑한 테라스. 2 1900년대 초기 레스토랑 프뤼니에르의 모습. 3 프뤼니에르 레스토랑의 메뉴는 아티스트의 판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을 끈다. 4 프뤼니에르의 수석 요리사이자 미술생 스타 셰프 에릭 쿠아셀. 5 프뤼니에르의 주메뉴는 해산물, 특히 최고급의 캐비아 요리이다. 6 이탈리아식 대구 요리. 7 송로버섯을 곁들인 만지 요리와 화이트 와인.



## FASHION

**10 코르스 코모 서울 아이 팝업 스토어 오픈** 10 코르스 코모 서울이 지난 3월 1일 갤러리 명품관 웨스트 4층에 '아이(AMI)'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 2011년 남성복 디자이너 알렉산드르 마티유시가 론칭한 브랜드로,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완벽한 남자의 옷장을 콘셉트로 한다. 아이 팝업 스토어는 8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 될 예정이다. 문의 02-6905-3846

**띠어리 맨 서머 카디건** 띠어리 맨에서 서머 카디건을 선보인다. 라틴 소재 특유의 시원함을 실려 경쾌한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아이템으로, 봄에는 재킷과 코트 속에 매치하거나 여름에는 티셔츠와 함께 레이어드할 수 있어 활용도 높은 스타일링이 가능한 아이템이다. 문의 02-544-0065

**구찌 익스클루시브 1953 컬렉션** 구찌는 홀스트 로퍼 탄생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남성용 여성용을 위한 '1953 컬렉션'을 선보인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란차 카니니는 하우스만의 유산에서 영감을 받아 메탈 디테일을 기반으로 과감한 컬러와 소재의 조합을 통해 세



띠어리 맨

구찌



버버리 프로섬

다울

에르메스

다리 F&S

로운 디자인을 창조했다. 페이턴트 레드, 스웨이드를 비롯해 크로커다일, 파이트론과 같은 고급 소재로 선보이며, 발등과 뒤꿈치를 메탈 스트랩으로 장식한 스타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1577-1921

**버버리 프로섬 블레이즈 백** 2013 S/S 버버리 프로섬 여성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블레이즈(Blaze) 백은 트래블 백을 연상시키는 구조적인 형태와 메탈릭한 컬러가 특징이다. 미니 잠금장치인 자물쇠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투명한 소재와 부드러운 사틴, 가죽 등 다양한 소재로 선보인다. 문의 02-3485-6583

**일 비중매 가죽 슬더백** 이탈리아 가죽 브랜드 일 비중매에서 가죽 슬더백을 출시한다. 백의 커버가 전면을 덮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배지태를 가죽을 사용해 빈티지한 맛이 느껴진다. 가방 하단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 가죽 본연의 구김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며 탈착 가능한 스트랩은 다양한 방식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신사용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48-2992

**토즈 D백** 토즈가 봄을 위한 가방으로 'D백'을 제안한다. 최상의 천연 가죽을 사용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이코닉한 가방으로 자리 잡은 D백은 송아지, 악어, 송치, 페이턴트 등 다양한 소재로 조곤씩 디자인을 변형하면서 매 시즌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인다. 문의 02-3448-8105

**다울 다울리시모 백** 다울이 2013 S/S 시즌을 맞아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다울리시모 백을 받고 경쾌한 컬러로 출시한다. 최상급 카프 스킨과 수송아지 가죽을 수작업으로 가공해 완성도를 높였으며, 가방 안쪽과 걸음의 컬러를 다르게 구성한 대담한 컬러 매칭이 특징이다. 옐로 라임, 핑크 등 밝고 어울리는 화사한 컬러와 오스트리치, 악어 등 이그조틱 가죽으로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2-513-3232

**다리 F&S 로에베 2013 뉴 컬렉션** 다리 F&S 가 로에베 2013 아이 웨어 컬렉션을 선보인다. 특히 SLW408은 여성스러운 라인에 메탈을 결합한 보잉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로에베의 패들룩 장식을 반복적

으로 연결해 심플하고 우아한 멋을 강조했다. 어떤 옷차림에나 잘 어울리는 베이스한 디자인이라 실용성이 높다. 문의 02-513-2389

**에르메스 H-이워 워치** 에르메스의 H-이워 워치가 새로운 시즌을 맞아 한층 고급스럽게 거듭났다. 화이트 자개로 제작한 다이얼과 측면을 날렵하게 디자인한 핸즈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밤하늘의 별처럼 신비롭게 빛나는 아워 마크는 12시 방향의 아라비아숫자와 함께 11개의 다이아몬드로 표시했다. 문의 02-3448-0728

**키튼 세븐 폴드 타이** 키튼에서 봄을 맞아 '세븐 폴드 타이'를 출시한다. 100% 수직업으로 제작하는 키튼 타이는 브랜드의 독점 원단을 사용했으며, 7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타이가 뒤틀리거나 형태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다. 레드, 옐로 등 수도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밝은 컬러로 구성했다. 문의 02-542-9953

# SHOWROOM

## JEWEL



**벨루가 론칭 기념 파티** 러시아 프리미엄 보드카 벨루가 남성 구두 편집 매장 유-띠어리에서 국내 론칭 기념 파티를 진행했다. 벨루가는 시베리아 330m 지하에서 끌어올린 청정수와 러시아 평원에서 재배한 보리로 만든 몰트를 담은 순도 100% 보드카다. 노블 라인은 30일, 골드 라인은 90일 숙성 과정을 거쳐 부드러운 질감과 은은하며 고급스러운 풍미를 선사한다. 문의 02-2175-0024



**타사키 히트 투 히트** 타사키에서 18K 시쿠라 골드와 담수 진주로 만든 '히트 투 히트'를 선보인다. 2개의 뜨거워 상상이 합쳐져 하나가 된 디자인은 연인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과의 사랑과 우정의 의미가 담겨 있다. 담수 진주와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세팅한 골드 볼은 멋있을 수 있는 디자인에 인체공학과 경쾌함을 불어넣으며,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링으로 구성했다. 문의 02-3461-5558



**케이트 서머빌 데탈랜치 리퀴드 리프트** 케이트 서머빌의 베스트셀러 아이템 '데탈랜치 리퀴드 리프트'를 소개한다. 피부 속 히알루론산과 수분량을 증가시켜 주름을 매워주는 필러 기능이 담긴 부스터로, 탄력 저하, 건조함, 균일하지 않은 피부 톤 등 노화 증상을 빠르게 해결해주며, 흡수가 빠른 텍스처가 피부결을 고르고 매끄럽게 정돈해준다. 압구정동 플래그십 부티크에서 선보인다. 문의 02-547-8985

**바비 브라운 롱웨어 이브 피니시 캠펙트 파운데이션** 바비 브라운에서 베스트셀러인 롱웨어 이브 피니시 캠펙트 파운데이션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콤팩트 타입으로 완성한 '롱웨어 이브 피니시 캠펙트 파운데이션'을 출시한다. 칙칙한 안색을 밝혀주고 고르지 않은 피부결을 정돈해 매끄럽고 윤기가 도는 피부를 만들어 준다. 저속력이 우수하다. 8가지 다양한 컬러로 출시되어 자신의 피부 톤과 딱 맞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3440-2538

**설화수 자정미백아이트리트먼트** 설화수가 매끄러운 텍스처와 콜링 애크셀레이터로 지친 눈가를 편안하고

한하게 밝혀주는 '자정미백아이트리트먼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한방에서 가장 대표적인 청열 약재인 황금 추출물을 주요 성분으로 사용해 피부 속 콜링 센서를 활발하게 작동시켜 눈가의 열을 다스리고 환하게 밝혀준다. 콜링 미백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애크셀레이터는 수술도 구에 많이 쓰이는 자정(zamak)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눈가 온도를 2°C 정도 내려 부기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문의 080-023-5454





www.dior.com - 02 513 3200

# Dior